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權仁瀚**

I. 머리말	III.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II.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및 표기자 정리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6세기 신라 금석문 9종 11건을 대상으로 이들에 쓰인 고유명사 표기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성모·운모·성조 등의 분포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지닐 수 있는 음운사적 의의, 특히 고대 한국한자음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에 목표를 둔 것이다.

2장에서는 기존에 발굴된 6세기 신라 금석문들 중에서 훼손이 심하거나, 고유명사 표기례의 숫자가 충분치 않아 본고의 논의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산·황초령 진흥왕순수비 및 경주 남산신성 3·4·5·6·7·8·10비”를 제외한 “포항 중성리비(501)~경주 남산신성 1·2·9비(591)”에 이르는 11종의 금석문들에 대한 원문 구조 분석,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및 표기자 정리 등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보인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수집·정리된 각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자의 성모 분포도, 운모 분포도, 성조 분포도 및 疑·來母字 분포도 등을 바탕으로 ①무기음(전청) vs. 유기음(차청)의 비율, ②무성음(전청+차청) vs. 유성음(전탁+차탁)의 비율, ③설두음 vs. 설상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34883). 또한 본고는 한국목간학회 제34회 정기발표회(20200625,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한 것임도 밝혀둔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음의 비율, ④치두음 vs. 정치음의 비율(이상 성모편), ⑤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 및 개음절 vs. 폐음절의 비율, ⑥성조의 분포(이상 운모편), ⑦음소 분포 제약 등의 지표들에 대하여 고유명사 표기자의 분포적 특징 및 흐름을 살펴본 것이다.

논의 결과 신라한자음은 6세기 전반에는 광개토왕비문으로 대표되는 5세기 고구려한자음과의 공통성을 유지해오다가 6세기 후반에 들어 몇 가지 차이점들이 나타나면서 점차 신라화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주제어 : 6세기 신라 금석문, 고대 한국한자음, 신라한자음, 고구려한자음, 성모 · 운모 · 성조 분포도

I. 머리말

본고는 6세기 신라 금석문 11종을 대상으로 이들에 쓰인 고유명사 표기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성모·운모·성조 등의 분포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지닐 수 있는 음운사적 의의, 특히 고대 한국한자음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에 목표를 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기존에 발굴된 6세기 신라 금석문들 중에서 훼손이 심하거나, 고유명사 표기례의 숫자가 충분치 않아 본고의 논의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산·황초령 진흥왕순수비 및 경주 남산신성 3·4·5·6·7·8·10비”를 제외한 “포항 중성리비(501)~경주 남산신성 1·2·9비(591)”에 이르는 11종의 금석문들에 대한 원문 구조 분석,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및 표기자 정리 등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보일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수집·정리된 각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자의 성모 분포도, 운모 분포도, 성조 분포도 및 疑·來母字 분포도 등을 바탕으로 ①무기음(전청) vs. 유기음(차청)의 비율, ②무성음(전청+차청) vs. 유성음(전탁+차탁)의 비율, ③설두음 vs. 설상음의 비율, ④치두음 vs. 정치음의 비율(이상 성모편), ⑤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 및 개음절 vs. 폐음절의 비율, ⑥성조의 분포(이상 운모편), ⑦음소 분포 제약 등 광개토왕비문 연구에서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¹⁾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분포적 특징 및 흐름을 살펴본 후, 이들을 통한 6세기 신라 한자음의 경향 파악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본론에서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후, 이 글을 포함하여 최근 필자의 일련의 논의들에서 드러난 바를 바탕으로 6세기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신라한자음의 흐름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이 방면의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의 아낌없는 叱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1) 본고의 분석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권인한, 『광개토왕비문 신연구』, 박문사, 2015와 동일한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각종 분포도를 제시함에 있어서 字種數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延字數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분포론적 특징들에 대한 해석상의 균질성을 기하고자 한 것에 있음을 밝혀 둔다.

Ⅱ.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및 표기자 정리

이 장에서는 다음 장의 논의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포항 중성리비(501)에서 경주 남산신성비(591)에 이르기까지 6세기 신라 금석문 11종에 대한 판독 및 해석문을 토대로 원문 구조 분석²⁾,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및 표기자 정리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1. 포항 중성리비(501)³⁾

- 1) 亲已 [□□(□)] [中] [斯^{折?}盧(A) □…

喙部(A) 習智(B) 阿干支(C), 沙喙(A) 斯^{折?}德智(B) 阿干支(C) 教.

- 2) 沙喙(A) 爾^由智(B) 奈麻(C), 喙部(A) 卒智(B) 奈麻(C), 本牟子 喙(A) 沙利(B) · 夷斯利(B) 白:

“爭人 喙評(A) 公斯弥(B), 沙喙(A) 夷須(B), 牟旦伐喙(A) 斯利(B) 壹伐(C) · 皮朱智(B), 本波喙(A) 柴(B) 干支(C) · 弗乃(B) 壹伐(C), 金評(A) □(B) 干支(C) · 祭智(B) 壹伐(C),

使人 奈蘇毒只(a)道使 喙(A) 念牟智(B), 沙喙(A) 鄒須智(B),

世令 于^{干?}居伐(A) 壹斯利(B), 蘇豆古利村(a) 仇鄒列支(B) 干支(C) · 沸竹休(B) 壹金知(C), 那音支村(a) 卜□(B) 干支(C) · 乞斤(B) 壹金知(C), 玆伐(A) 壹^{昔?}□(B).

(教)云: ‘豆智(B) 沙干支(C)宮, 日夫智(B?)宮 奪爾, 今更還 牟旦伐喙(A) 作民.’”

- 3) 沙干支(C) 使人 [果]西牟利(B) 白口 “若後世更導人者 與重罪.”

2) 원문 구조 분석의 기본 틀은 국립경주박물관 편, 『신라문자자료 I · II』, 2017 · 2019의 원고 집필자 이용현 선생의 “원문 끊어읽기”의 방식을 준용한 것임을 밝혀 謝意를 표한다.

※ 밑줄(): 고유명사(A): 상위 지명(국명/부명 등), (a): 하위 지명, (B): 인명, (C): 관등명, (d): 직명 및 기타, *X: 이체자, [X]: 추독자(잔존 자형이나 비편 또는 문맥으로 추독되는 글자 포함), [YZ]: 상하 합자, Y^{ZZ}: Y자로 판독되나 Z자일수도 있음, □: 미상자 · 파손자.

3) 이 비문의 판독, 해석 및 원문 구조 분석은 권인한, 「포항중성리신라비의 국어사적 의의 탐색: 신라 3비문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및 비교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한국고대사학회 편, 『신라 왕경과 포항중성리신라비』, 2020을 바탕으로 부분 수정한 것이다. 다만, 본고의 초점이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에 있음과 원고 분량을 고려하여 원문에 대한 해석문은 원문 구조 분석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 것임을 밝혀둔다.

典書 與牟豆(B) 故記, 沙喙(A) 心刀哩(B) [口].

(1) 포항 중성리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⁴⁾

A: 𪛗廬, 金評, 喙評, 牟旦伐喙², 本波喙, 沙喙⁵, 喙⁴(喙部² 포함), 于居伐, 珍伐

a: 那音支村, 蘇豆古利村, 奈蘇毒只

B: 乞斤, 公斯弥, 仇鄒列支, 念牟智, 豆智, 卜巳, 弗乃, 果西牟利, 沸竹休, 斯德智, 斯利, 沙利, 習智, 柴, 心刀哩, 與牟豆, 夷斯利, 夷須, 爾抽智, 壹巳, 日夫智, 壹斯利, 祭智, 卒智, 鄒須智, 皮朱智

C: 干支⁴, 沙干支², 阿干支², 奈麻², 壹金知², 壹伐³

(1') 포항 중성리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⁸ 居 乞 古 公 果 仇 斤 金³ 那 乃 奈³ 念 旦² 德 刀 毒 豆³ 列 盧 利⁶ 哩 麻³
牟 弥(彌) 伐⁷ 卜 本 夫 弗 沸 斯⁵ 沙⁸ 西 蘇² 須² 習 柴 心 阿² 與 于 音 夷²
爾 壹⁷ 日 祭 卒 朱 竹 只 支¹⁰ 智¹⁰ 知² 珍 抽 鄒² 波 評² 皮 喙¹⁰ 休
<字種 63, 延字數 145>

2. 포항 냉수리비(503)⁵⁾

1) <前面> 斯羅(A) 喙(A) 斯夫智(B)王 · 乃智(B)王, 此二王 教: “用珎而麻村(a) 節居利(B)爲證爾, 令其得財教耳.”

癸未年九月廿五日, 沙喙(A) 至都廬(B) 葛文王(C) · 斯德智(B) 阿干支(C) · 子宿智(B) 居伐干支(C), 喙(A) 爾夫智(B) 壹干支(C) · 只心智(B) 居伐干支(C), 本彼(A) 頭腹智(B) 干支(C), 斯彼(A) 暮斯智(B) 干支(C), 此七王等共論 教, “用前世二王教爲證爾, 取財物, 盡令節居利(B)得之教耳.”

2) 別教: “節居利(B)若先死, 後令其弟兒斯奴(B)得此財教耳.”

別教: “未鄒 · 斯申支(B) 此二人後莫更謔此財, <後面> 若更謔者 教其重罪耳.”

3) 典事人 沙喙(A) 壹夫智(B) 奈麻(C) · 到廬弗(B) · 須仇[休](B), 喙(A) 耽須(a)道使心訾公(B), 喙(A) 沙夫(B) · 那斯利(B), 沙喙(A) 蘇那支(B) 此七人跟□^{跡?}所白了事, 煞牛拔誥故記. <上面> 村主 史支(B) 干支(C) · 須支(B) 壹今智(C) 此二人世中了事

4) ※어깨번호는 빈도수, 취소선(※)은 분석 대상 제외자들임을 표시함. 이하 같음.

분석 대상 제외자들은 1) 미상자(口), 2) 한문 요소, 3) 판독상 異異이 큰 글자(Y^{zn} 제시자 일부),

4) 고유명사 구조상 타 비문에 비해 차이가 현저한 지명 후부 요소(중성리비 ‘喙’) 등임을 밝혀둔다.

5) 이 비문의 판독 및 원문 구조 분석도 권인한, 앞의 논문을 바탕으로 부분 수정한 것이다.

故記.

(2) 포항 냉수리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斯羅, 本彼, 斯彼, 沙喙³, 喙⁴

a: 珍而麻村, 耽須

B: ^斯夫智, 乃智, 那斯利, 到盧弗, 頭腹智, 末鄒, 暮斯智, 斯奴, ^斯德智, 沙夫, 斯申支, 蘇那支, 須仇休, 須支, 心訾公, 臾支, 爾夫智, 壹夫智, 子宿智, 節居利³, 至都盧, 只心智

C: 葛文王, 干支³, 居伐干支², 奈麻, 阿干支, 壹干支, 壹今智

(2') 포항 냉수리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⁷ 葛居⁵ 公仇今那² 乃奈奴德到都頭羅盧² 利⁴ 麻² 末暮文伐² 腹本夫⁴ 弗斯⁸ 沙⁴ 蘇須³ 宿申心² 阿臾爾而壹³ 子訾節³ 只支¹¹ 智¹⁰ 至珍鄒 耽(=耽) 彼² 喙⁷ 休 <자중 51, 연자수 114>

3. 울진 봉평리비(524)⁶⁾

- 1) 甲辰季 正月 十五日, 喙部(A) 牟即智(B) 寐錦王(C), 沙喙部(A) 徙夫智(B) 葛文王(C), 本波部(A) □夫智(B) 干支(C), 岑喙部(A) 美昕智(B) 干支(C), 沙喙部(A) 而粘智(B) 大阿干支(C) · 吉先智(B) 阿干支(C) · 一羞夫智(B) 一吉干支(C), 喙(A) 勿力智(B) 一吉干支(C) · 慎宋智(B) 居伐干支(C) · 一夫智(B) 太奈麻(C) · 一爾智(B) 太奈麻(C) · 牟心智(B) 奈麻(C), 沙喙部(A) 十斯智(B) 奈麻(C) · 悉爾智(B) 奈麻(C) 等 所教事.
- 2) 別敎令: “居伐牟羅(A) 男弥只(a), 本是奴人, 雖是奴人, 前時王大敎. 法道俠阡隘爾, 耶界城(A)失火遶城, 我大軍起. 若有者一行起之, 人備土專, 王大奴村(a)貪共值五, 其餘事種種奴人法.”
- 3) 新羅(A) 六部 煞斑牛 [訓][評]. [處]事大人 喙部(A) 內沙智(B) 奈麻(C), 沙喙部(A) 一登智(B) 奈麻(C) · 莫次(B) 邪足智(C), 喙部(A) 比須婁(B) 邪足智(C), 居伐牟羅(A) 道使 牟次(B) 小舍帝智(C), 悉支(A) 道使 烏婁次(B) 小舍帝智(C), 居伐牟羅(A) 尼牟利(B) 一伐(C) · 弥宜智(B) 波旦(C) · 旦只斯利(B) 一金智(C). 阿[尺]兮村(a)使人 奈爾利(B) 杖六十, 葛尸條村(a)使人 奈爾利(B) 居□尺(C), 男弥只村(a)使人 翼□(B) 杖百, 於即斤利(B) 杖百, 悉支(A) 軍主 喙部(A) 爾夫智(B) 奈麻(C).

6) 이 비문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도 권인한, 앞의 논문을 바탕으로 부분 수정한 것이다.

節 書人 牟玆斯利公(B) 吉之智(C) · 沙喙部(A) 善文(B) 吉之智(C),
 新人 喙部(A) 述刀(B) 小烏帝智(C), 沙喙部(A) 牟利智(B) 小烏帝智(C),
 立石碑人 喙部(A) 博士(C).

于時 敎之: “若此者獲罪於天.”

居伐牟羅(A) 異知巳(B) 下干支(C) · 辛日智(B) 一尺(C) 世中[字] 三百九十八.

(3) 올진 봉평리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新羅, 居伐牟羅⁴, 本波部, 沙喙部⁶, 悉支², 耶界城, 岑喙部, 喙⁷(喙部⁶ 포함)

a: 葛尸條村, 男弥只²(村), 大奴村, 阿尺兮村

B: 曰夫智, 吉先智, 內沙智, 奈爾利², 尼牟利, 莫次, 牟利智, 牟心智, 牟即智, 牟珍斯利公, 勿力智, 弥宜智, 美昕智, 比須婁, 徙夫智, 善文, 述刀, 慎宋智, 辛日智, 悉爾智, 十斯智, 於即斤利, 烏婁次, 爾夫智, 而粘智, 異知巳, 翼巳, 一登智, 一夫智, 一羞夫智, 一爾智, 卒次, 組只斯利

C: 葛文王, 寐錦王, 干支², 居曰尺, 居伐干支, 吉之智², 奈麻⁶, 大阿干支, 博士, 邪足智², 小舍帝智², 小烏帝智², 阿干支, 一吉干支², 一金智, 一伐, 一尺, 太奈麻², 波旦, 干干支

(3') 올진 봉평리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⁸ 葛² 居⁶ 界 公 斤 金 錦 吉⁵ 男² 內 奈¹⁰ 奴 尼 旦 大 刀 登 羅⁵ 力 婁² 利⁷ 麻⁸
 莫 寐 牟⁹ 文² 勿 弥(彌)³ 美 伐⁶ 本 夫⁵ 比 徙 斯³ 沙⁷ 舍² 邪² 先 善 羞 須 述 尸
 慎 新 辛 悉³ 心 十 阿³ 耶 於 烏³ 宍 宜 爾⁵ 異 而 翼 一⁹ 日 岑 粘 帝⁴ 條(條)
 足² 足 卒 即(卽)² 之² 只³ 支¹⁰ 智²⁹ 知 珍 次³ 尺³ 組(組) 巳(巴) 波² 兮 喙¹⁴ 昕
 <자중 85, 연자수 241>

4. 울주 천전리 서석(525, 539)⁷⁾

(가) 원명

- 1) 乙巳[年] 沙喙部(A) [葛]文王(C) 覓遊來, 始得見谷之.
古谷 无名, 谷 善石得, 造[書] 々 (=之).
以下 爲名 書石谷, 字作[之].
- 2) 并遊 友 妹 [麗]德(d) · 光妙(d) · 於[史]鄒(B)女郎 三之.
[食]多繁 作功人 余利夫智(B) [大奈][麻](C) · 悉得斯智(B) 大舍帝智(C),
作食[人] [榮]知智(B) 壹吉干支(C) 妻 居知尸奚(B)夫人, 眞穴智(B) 沙干支(C) 妻 阿
兮牟弘(B)夫人,
作書人 [募] 々 余智(B) 大舍帝智(C).

(나) 추명

- 1) 過去 乙巳年 六月 十八日 昧, 沙喙部(A) 徙夫知(B) [葛]文王(C) 妹 於[史]鄒(B)女郎
三[共]遊來 以後 □[年]. 八^乙□[年] 過去 妹王考 妹王 過[人]. 丁巳年 王 過去, 其王妃
只沒尸兮(B)妃 愛自思.
- 2) 己未年 七月 三日 其王与妹, 共見 書石叱見來谷.
此時 共三來, 另即智(B)太王妃, 夫乞支(B)妃, 徙夫知(B)王 [子]郎 深□夫知(B) [共]
[來].
此時 鹹作□臣 喙部(A) 知礼夫知(B) 沙干支(C), □泊六知(B) 居伐干支(C),
□臣 丁乙余知(B) [奈][麻](C),
作食人 眞穴知(B) △波珎干支(C) 婦 何[太]牟呼(B)夫人,
□夫知(B) 居伐干支(C) 婦 [一][利]□次(B)夫人,
□□[次](B) □干支(C) 婦 沙□□(B)夫人, 共作之.

(4) 울주 천전리서석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沙喙部²⁾, 喙部

7) 이 명문들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이문기, 「울주 천전리서석」,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신라1 · 가야 편)』,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박병철, 「울주 천전리 서석 원명과 추명에 대하여」, 구결학회 월례 강독회 발표문, 2006.5.13.;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신라 금석문 탁본전』, 성균관대 출판부, 2008; 국립경주박물관 편, 앞의 책, 2019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 B: 𐑯𐑯次, 𐑯泊六知, 𐑯夫知, 居知尸奚, 另即智, 募募爾智, 夫乞支, 沙𐑯𐑯, 徙夫知², 悉得斯智, 深𐑯夫知, 阿兮牟弘, 於史鄒², 榮知智, 爾利夫智, 一利𐑯次, 丁乙尔知, 知礼夫知, 只沒尸兮, 眞肉智~眞肉知, 何太牟呼
- C: 𐑯干支, 葛文王², 居伐干支, 奈麻, 大奈麻, 大舍帝智², 沙干支², 壹吉干支, ˆ波珍干支
- d: 光妙, 麗德

(4) 울주 천전리서석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⁷ 葛² 居³ 乞 吉 奈² 得(=得) 禮 六 利² 麻² 募² 牟² 沒 另(=牟~武)⁸ 文² 泊 伐² 夫⁷ 斯 沙⁵ 史² 徙² 舍² 尸² 悉 深 阿 於² 榮 宍(=肉)² 乙 尔(=爾)³ 一 壹 丁 帝² 即(=卽) 只 支⁸ 智⁸ 知¹¹ 珍 眞² 次² 鄒² 太 波 何 奚 兮² 呼 弘 喙³

<자중 54, 연자수 119>

5. 단양 적성비(545~550?)⁹⁾

1) □□[年] □月中 王敎事.

大衆等 喙部(A) 伊史夫智(B) 伊干[支](C),

沙[喙][部](A) 豆弥智(B) 彼玕干支(C),

喙[部](A) 西夫叱智(B) 大阿干[支](C) · □□夫智(B) 大阿干支(C) ·

內礼夫智(B) 大阿干支(C),

高頭林城(A) 在[軍]主等 喙部(A) 比次夫智(B) 阿干支(C),

沙喙部(A) 武力智(B) [阿][干][支](C),

[鄒]文村(a) 幢主 沙喙部(A) 導設智(B) 及干支(C),

- 8) 「另」자는 신라 속자의 하나로서 「牟」자나 「武」자와 상통하는 글자다. “牟即智寐錦王”〈울진 봉평리 비〉~“另即智太王妃”〈울주 천전리서석_추명〉, “武力智阿干支”〈단양 적성비〉~“另力智迺干”〈창녕 진흥왕척경비, 북한산·마운령 진흥왕순수비〉. 「另」자의 연원이나 그 음가에 대한 논의는 별고를 기약하겠거니와, 본고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另」자의 음가를 잠정적으로 「牟」자와 「武」자에 각각 1/2씩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임을 밝혀둔다.
- 9) 이 비문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주보돈, 「단양 적성비」,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1992; 남풍현, 『이두연구』, 태학사, 2000; 장경준, 「단양적성비문의 재검토」, 『한국목간학회 제4회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2009;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앞의 책; 국립경주박물관 편, 앞의 책, 2019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勿思伐城(A) [幢][主] [喙]部(A) 助黑夫智(B) 及干支(C).

- 2) 節敎事. 赤城(A) 也尔次(B) □□□□中, 作善□^{通?} 懷懃 力使 死人. 是以後 其妻 三□□
(B?)□□□□□□□□ 許利之 四年. 小女 師文□□□□□□□□公兄 鄒文村(a) 巳
玆婁(B) 下干支(C), □□□□□□□□[前]者, 更 赤城(A)烟 去使之. 後者, 公[兄]²□□
□□□□□異葉耶 國法中 分与. 雖然 伊□□(B?)□□□□□□子, 刀只(B)小女, 烏
礼兮(B) 撰干支(C)□□□□□□□□使法 赤城(A) 佃舍法 爲之. 別 官賜□□□□ □弗
兮(B)女, 道豆只(B), 又悅利巳(B)小子, 刀羅兮(B)□□□□合五人之.
- 3) 別敎: 自此後 國中 如也尔次(B)□□□□□懷懃 力使 人事. 若其生子女 子年少□□□
□□□□兄弟耶. 如此白者 大人耶 小人耶...
- 4) □□□□□□□□[喙]部(A) 奈弗耽郝失利(B) 大舍(C), 鄒文[村](a)□□□□□□□□勿
思伐城(A) 幢主使人 邢利村(a)□□□□□□□□人 勿支次(B) 阿尺(C), 書人 喙部(A)
□□□□□□□□人 石書立人 非今皆里村(a)□□□□□□□□智(B) 大烏(C)之.

(5) 단양 적성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高頭林城. 勿思伐²城. 沙喙³部, 赤城³(烟), 喙⁶部

a: 邢利村, 非今皆里村, 鄒文³村

B: 田田夫智, 田田智, 田弗兮, 內礼夫智, 奈弗耽郝失利, 道豆只, 刀羅兮, 導設智,
刀只, 豆弥智, 武力智, 勿支次, 比次夫智, 西夫叱智, 也尔次², 烏礼兮, 又悅利
巳, 伊史夫智, 助黑夫智, 巳玆婁, 三田田(?), 伊田田(?)

C: 及干支², 大舍, 大阿干支³, 大烏, 阿干支², 阿尺, 伊干支, 撰干支, 彼玆干支, 干干支

(5) 단양 적성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¹¹ 皆 高 今 及² 那 內 奈 刀² 道 導 豆² 頭 羅 力 礼(=禮)² 婁 利³ 里 林 武 文³
勿³ 弥(=彌) 伐² 夫⁶ 弗² 比 非 史 舍 思² 沙³ 三 西 設 失 阿⁶ 也² 悅 烏² 又 伊³
爾² 助 只² 支¹² 智¹⁰ 珍² 叱 次⁴ 撰 尺 鄒³ 耽 巳(=巴)² 彼(=彼) 郝 兮³ 喙⁹ 黑
<자중 61, 연자수 139>

6. 창녕 진흥왕척경비(561)¹⁰⁾

1) 亲巳年二月一日立.

[寡]人幼[年]承基, 政委輔弼, [俊]□[智]□, 行[悉²]事末□□立[哭]□思赦□□□□□[四]
方□攸囚²□□地土[隘]陝也. 占□□□文²□□□□□□□□□□□□□□□□人普於山与
心□[耶]. 初除林□^樁□□□□□□□□□□□□, 然□□□□此□卅□□而已. 土地彊[畝],
山林□□□□□□□□□□也. 大等与軍主·幢主·道使与外村主審[照]. 故□□□□□□
□土□□ 海州(a?) 白田·畚□□与山□河川.

2) □教以□□□□□□□□□□□□□□□□□□人[煞²]之. 雖不□□□□□□□□□□□□心 □□河□□□□杖[与]之. 其餘少小事知古□[法]□□□□□□者□□以上大等与古奈末 (d)典[法]芄□人[与]上□□□□□□□□□□□□□□□□此以□□看其身受[割].

3) 于時, □□大□□□□□□智(B) 葛文王(C), □□□□者 漢只(A) □□屈珎智(B) 大一伐干(C), [沙]喙(A) □□智(B) 一伐干(C), □□折夫智(B) 一尺干(C), □智(B) 一尺干(C), 喙(A) □□夫智(B) 迺干(C), 沙喙(A) 另力智(B) 迺干(C), 喙(A) 小里夫智(B) □□干(C), 沙喙(A) 都設智(B) 沙尺干(C), 沙喙(A) 伐夫智(B) 一吉干(C), 沙喙(A) 忽智(B) 一□□(C), [喙](A) 弥利□次公(B) 沙尺干(C), 喙(A) 余亡智(B) 沙尺(C), 喙(A) 述智(B) 沙尺干(C), 喙(A) □□□□(B) 沙尺干(C), 喙(A) 比叶□□智(B) 沙{尺干}(C), 本^波(A) 末□智(B) 及尺干(C), 喙(A) □□智(B) □□□(C),

10) 이 비문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노중국, 「울주 천전리서석」,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1992;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앞의 책; 국립경주박물관 편, 앞의 책, 2017; 정현숙,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2018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沙喙(A) 刀下智(B) 及尺干(C),
	沙喙(A) □□智(B) 及尺干(C),
	喙(A) 鳳安智(B) □□□(C),
□□等	喙(A) 居七夫智(B) 一尺干(C),
	[喙](A) 一夫智(B) 一尺干(C),
	沙喙(A) 甘力智(B) □□干(C),
□大等	喙(A) 未得智(B) □尺干(C),
	沙喙(A) 七聰智(B) 及尺干(C),
四方軍主	比子伐(A)軍主 沙喙(A) 登□□智(B) 沙尺干(C),
	漢城(A)軍主 喙(A) 竹夫智(B) 沙尺干(C),
	碑利城(A)軍主 喙(A) 福登智(B) 沙尺干(C),
	甘文(A?)軍主 沙喙(A) 心夫智(B) 及尺干(C),
上州行使大等	沙喙(A) 宿欣智(B) 及尺干(C),
	喙(A) 次叱智(B) 奈末(C),
下州行使大等	沙喙(A) 春夫智(B) 大奈末(C),
	喙(A) 就舜智(B) 大舍(C),
于抽・悉□・□西阿郡(a)使大等	
	喙(A) 北尸智(B) 大奈末(C),
	沙喙(A) 須竹夫智(B) 奈[末](C),
旨爲人	喙(A) 德文(B) 奈末(C),
比子伐倅(d)助人	喙(A) 覓薩智(B) 大奈末(C),
書人	沙喙(A) 導智(B) 大舍(C),
村主	忒聰智(B) 述干(C), 麻叱智(B) 述干(C).

(6) 창녕 진흥왕척경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甘文, 本¹⁵波, 碑利城, 比子伐, 沙喙¹⁵, 漢城, 漢只, 喙¹⁹

a: 西阿郡, 悉, 于抽, 海州

B: □□□□, □□□智, □□屈珎智, □□夫智, □□折夫智, □□智³, □智, 甘力智, 居七夫智, 德文, 都設智, 導智, 刀下智, 登□□智, 另力智, 麻叱智, 未□智, 未得智, 忒聰智, 覓薩智, 弥利□次公, 伐夫智, 福登智, 鳳安智, 北尸智, 比叶□□智, 小里夫智, 須竹夫智, 宿欣智, 述智, 心夫智, 余亡智, 一夫智, 竹夫智, 次叱智, 春夫智, 就舜智, 七聰智, 忽智

C: □□□², □□干², □尺干, 葛文主, 及尺干⁶, 奈末³, 大奈末³, 大舍², 大一伐干,

沙尺, 沙尺干⁸, 述干², 一⁸吉干, 一伐干, 一尺干⁴, 迺干²

d: 青奈末, 比子伐停

(6') 창녕 진흥왕척경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²⁸ 葛² 居² 屈² 及⁶ 吉⁷ 奈⁷ 德⁷ 刀⁷ 導⁷ 都⁷ 得⁷(=得) 登² 力² 利² 里² 麻² 末⁹ 亡² 奚² 另²(=牟~武) 文³ 弥³(=彌) 伐⁵ 福⁵ 本⁵ 鳳⁵ 夫¹⁰ 北⁵ 碑⁵ 比³ 沙²⁴ 舍² 薩² 西² 設² 小² 須² 宿² 舜² 述² 尸² 悉² 心² 阿² 安² 于² 尔²(=爾) 一⁹ 子² 迺² 折² 竹² 只² 智³⁸ 珍² 叱² 次² 尺²⁰ 聰² 抽² 春² 就² 七² 波² 下² 漢² 叶² 忽² 喙³⁴ 欣² <자중 75, 연자수 271>

7. 마운령 진흥왕순수비(568)¹¹⁾

1) <陽面> 太昌元年 歲次戊子 [八][月] 廿一日 [癸][未], [眞]興(B) 太王(C)巡狩[管][境]刊石銘記也. 夫純風不扇 則世道乖眞, 旨化不敷 則邪爲交競. 是以, 帝王建号 莫不修己以安百姓. 然朕歷數當躬, 仰紹太祖之基, 纂承王位, 兢身自慎, 恐違乾道. 又蒙天恩, 開示運記. 冥感神祇, 應符合筭. 因斯, 四方託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府自惟忖, 撫育新古黎庶, 猶謂 道化不周, 恩施未有. 於是 歲次戊子 秋八月, 巡狩管境, 訪採民心, 以欲勞賚, 如有忠信精誠才超察厲勇敢強戰, 爲國盡節有功之徒, 可加賞爵, □以章勲勞. 引駕日行, 至十月二日 癸亥, 向涉是 達非里(a), □廣□因論邊堺矣.

2) <陰面> 于是隨駕:

沙門道人 法藏(d) · 慧忍(d),

太等 喙部(A) 居朴夫智(B) 伊干(C) · 內夫智(B) 伊干(C),

沙喙部(A) 另力智(B) 迺干(C),

喙部(A) 服冬知(B) 大阿干(C) · 比知夫知(B) 及干(C) · 未知(B) 大奈末(C) · 及玆夫知(B) 奈末(C),

執駕人 喙部(A) 万兮(B) 大舍(C),

沙喙部(A) 另知(B) 大舍(C),

裏內從人 喙部(A) 沒兮次(B) 大舍(C),

沙喙部(A) 非尸知(B) 大舍(C),

11) 이 비문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노중국,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앞의 책, 1992;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앞의 책; 국립경주박물관 편, 앞의 책, 2017; 정현숙, 앞의 책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駙人 沙喙部(A) 爲忠知(B) 大舍(C),
 占人 喙部(A) 与難(B) 大舍(C),
 藥師 薦支次(B) 小舍(C),
 奈夫通典 本^波部(A) 加良知(B) 小舍(C),
 □□ 本^波部(A) 莫沙知(B) 吉之(C),
 及伐斬典 喙部(A) 夫法知(B) 吉之(C),
 裏內□□□□□□名(B) 吉之(C),
 堂來客·裏來客五十 外客□□□□□□□□□□智(B) 沙干(C),
 助人 沙喙部(A) 舜知(B) 奈末(C).

(7)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本^波部², 沙喙部⁵, 喙部⁶,
 a: 達非里
 B: □名, □智, 加良知, 居杵夫智, 及珙夫知, 內夫智, 薦支次, 另力智, 另知, 莫沙知,
 万兮, 沒兮次, 未知, 服冬知, 夫法知, 非尸知, 比知夫知, 舜知, 与難, 爲忠知, 眞興
 C: 及干, 吉之³, 奈末², 大奈末, 大舍⁶, 大阿干, 沙干, 小舍², 伊干², 迺干, 太壬
 d: 法藏, 慧忍

(7)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加 干⁶ 居 及² 吉³ 難 內 奈³ 達 薦 冬 良 力 另(=牟~武)² 莫 萬 末³ 名 沒 未 法
 服 本² 夫⁵ 比 非² 沙⁷ 舍⁸ 舜 尸 阿 與 爲 伊² 迺 支 智⁴ 知¹² 之³ 珍 次² 忠 杵(=漆)
 波² 兮² 喙¹¹ <자중 46, 연자수 108>

8. 대구 무술오작비(578?)¹²⁾

1) 戊戌年 {十一}月 朔 十四日 另冬里村(a) {且只}鳩(B) 作記之.

12) 이 비문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주보돈, 「대구 무술오작비」,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1992; 남풍현, 앞의 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앞의 책; 하일식, 「무술오작비 추가 조사 및 판독 교정」, 『목간과 문자』 3, 2009; 橋本繁, 「戊戌鳩作碑釋文の再檢討」,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94集, 千葉: 正文社, 2015; 국립경주박물관 편, 앞의 책, 2017; 정재영·최강선, 「무술오작비 3D 스캔 판독」, 구결학회 월례 연구발표회, 2019.12.28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2) 此成在人者

都唯卽 寶藏(d) [沙]尺干(C), 都唯卽 慧藏(d) 阿尼(d),
 大工尺 仇利支村(a) 壹利刀兮(B) 貴干(C),
 {工尺}^{支?} 上□(B?), 豆尔利兮(B),
 道尺 辰□^{{得}?}生之(B?), □□^{久?}村(a) □□^{丘?}(B), 夫作村(a) 笔令(B) 一伐(C) · 奈生(B) {一伐}(C), 居[毛]^{毛?}村(a) 代丁(B) {一伐}(C), 另冬里村(a) 沙尔乙(B) {一伐}(C), 玕得所利村(a) 也得失利(B) 一伐(C), [烏] 玕叱只村(a) [內][迺]尔(B) {一尺}(C) · 另所兮(B) {一伐}(C) · 伊此尔利(B) {一尺}(C) · [伊]助只(B) 彼日(C),
 此塢 本廣 廿步, 高 五步 四尺, 長 五十步,
 此作起數者 三百{十二}人 功夫如, 十三日 了作事之.
 文作人 壹利兮(B) 一尺(C).

(8) 대구 무술오작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

a: 田田村, 居毛村, 仇利支村, 另冬里村², 夫作村, 烏玕叱只村, 玕得所利村

B: 田田, 奈生, 內迺尔, 代丁, 豆尔利兮, 另所兮, 笔令, 沙尔乙, 也得失利, 伊助只, 伊此尔利, 壹利刀兮, 壹利兮, 辰田生之, 且只塢, 上田

C: 貴干, 沙尺干, 一伐⁶, 一尺³, 彼日

d: 寶藏, 慧藏, 阿尼

(8) 대구 무술오작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² 居 仇 貴 內 奈 尼 代 刀 冬² 豆 得(=得)² 令 另(=牟~武)³ 利⁷ 毛 笔 伐⁶ 夫 沙² 上 生² 所² 失 阿 也 烏 乙 伊² 尔(=爾)⁴ 壹² 日 一⁹ 作 迺 丁 助 之 只³ 支 辰 玕(=珍)² 叱 且 此 尺⁴ 彼 兮⁴ <자중 49, 연자수 91>

9. 경주 남산신성비(591)¹³⁾

9-1. 제1비

- 1) 亲亥年 二月 廿六日, 南山新城 作節, 如法以 作後三年 崩破者, 罪教事 爲 聞 教令 誓事之.
- 2) 阿良(a)邏頭 沙喙(A) 音乃古(B) 大舍(C),
 奴含(a)道使 沙喙(A) 合親(B) 大舍(C),
 [營]沽(a)道使 沙喙(A) □□[倣]知(B) 大舍(C),
 郡上村主 阿良村(a) 今知(B) 撰干(C),
 柒吐[郡²⁾](A) □知尔利(B) 上干(C),
 匠尺 阿良村(a) 末丁次(B) 干(C),
 奴含村(a) 次□叱礼(B) 干(C),
 文尺 □文知(B) 阿尺(C),
 城[徒]上 阿良(a) 沒奈生(B) 上[干](C),
 [工]尺 阿叱[兮]次(B) 干(C),
 文尺 竹生次(B) 一伐(C),
 面捉上 玕巾□(B),
 □^{脚?}捉上 知礼次(B),
 不捉上 首尔次(B),
 小石捉上 辱[兮]次(B),
 □□□受 十一步三尺八寸.

(9) 경주 남산신성 제1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沙喙³⁾

a: 營沽, 奴含, 奴含村, 阿良(村)⁴⁾, 柒吐郡

B: 倣知, 文知, 知尔利, 今知, 末丁次, 沒奈生, 首尔次, 阿叱兮次, 辱兮次,
 音乃古, 竹生次, 知礼次, 玕巾, 次叱礼, 合親

13) 이 비문들의 판독과 원문 구조 분석은 이명식, 「경주 남산신성비」,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1992; 후보돈, 「남산신성의 축조와 남산신성비-제9비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10 · 11, 1994; 남풍현, 앞의 책;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앞의 책; 박방룡(2011), 橋本繁, 「중고기 신라 축성비의 연구」, 『동국사학』 55, 2013; 국립경주박물관 편, 앞의 책, 2017 등의 논의 및 사진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또한 필요시 필자가 2019년 8월 23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촬영한 사진도 참조하였음도 밝혀둔다.

C: 干³, 大舍³, 士干², 阿尺, 一伐, 撰干

(9) 경주 남산신성 제1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⁶ 巾 古 沽 今 乃 奈 奴² 良⁴ 礼(=禮)² 利 末 沒 文 倣 伐 沙³ 舍³ 生² 首 阿⁶ 營
辱 音 尔(=爾)² 一 丁 竹 知⁵ 玼(=珍)² 叱² 次⁷ 撰 尺 親 柒(=漆) 吐 舍² 合 兮² 喙³
<자중 41, 연자수 77>

9-2. 제2비

1) 阿大兮村(a)

亲亥年 {二月} 廿六日, 南山新城(d)作節, 如法以 後三年 崩破者, 罪教事 爲 聞 教令
誓事之.

2) 阿旦兮村(a)道使

沙喙^{喙?}(A) 勿生次(B) {小舍}(C),

仇利城(A)道使

沙喙(A) 級知(B) {小舍}(C),

答大支村(a)道使

牟喙(A) 所叱□知(B) {大□鳥?}(C),

郡中[上][人]

[沙]尸城(A) 本西利之(B) 貴干(C),

久利城(A) 首□利之(B) 撰干(C),

匠尺

沙尸城(A) 可沙里知(B) {上干}(C),

文尺

美吹^{叱?}□之(B) {一伐}(C),

阿大兮村(a)作上人

所平^{平?}之(B) {上干}(C),

工尺

可尸□之(B) {一伐}(C),

文尺

得毛□^{世?}之(B) {一尺}(C),

面石捉人

仁尔之(B) {一伐}(C),

□^{脚?}石捉人

□首叱兮之(B) {一尺}(C),

□^{不?}石捉人

□^{乙?}安尔之(B) {彼日}(C),

小石捉人

兮利之(B) {彼日}(C),

受作七步四尺.

(10) 경주 남산신성 제2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久利城, 仇利城, 牟喙, 沙尸城², 沙喙²// a: 答大支村, 阿旦兮村, 阿大兮村²

B: 曰首叱兮之, 曰安尔之, 可沙里知, 可尸曰之, 級知, 本西利之, 得毛曰之, 勿生次,
美吹曰之, 所叱曰知, 所平之, 首曰利之, 仁尔之, 兮利之

C: 貴干, 大曰, 士干², 小舍², 一伐³, 一尺², 撰干, 彼日²

d: 南山新城

(10') 경주 남산신성 제2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可² 干⁴ 久 仇 級 旦 答 大³ 得 利⁵ 里 毛 牟 勿 美 伐³ 本 沙⁵ 舍² 生 西 所² 首²
 尸³ 阿³ 安 尔(=爾)² 仁 一⁵ 日² 之¹⁰ 支 知³ 叱² 次 撰 尺² 吹 平 彼² 兮⁵ 喙³
 <자종 42, 연자수 91>

9-3. 제9비

1) 亲亥年 二月 廿六日, 南山新城(d)作節, 如[法]以 作[後]三年 [崩]破者, 罪教[事] 爲 聞
 [教][令] 誓事之.

2) [仇]伐郡(A)中 [伊]同城(A) 徒 [受]六[步].

郡上人 [曳]安知(B) [撰]干(C), [生]伐(A) □^{城?}文(B) 上干(C),
 [匠]尺 同村(a) 內丁(B) 上干(C), 斤谷村(a) [另]利丈^{支?}(B) {一[尺]}(C),
 文尺 □^{生?}伐(A) 只次□(B) {一伐}(C),
 [城]徒上人 伊同村(a) □[尸]丁(B) 上干(C),
 工尺 指大□^{公?}村(a) 入夫□(B) {一伐}(C),
 文尺 伊同村(a) □次兮(B) 阿尺(C),
 面促 伯干支村(a) 支刀(B) {一尺}(C),
 □捉 同村(a) 西□(B) 阿尺(C),
 不捉人 伊同村(a) {□□}(B?),
 {小石}{捉人} 伯干[支]村(a) 戊七(B) {□□}(C).

(11) 경주 남산신성 제9비 고유명사 표기례 수집

A: 仇伐郡, 生伐, 伊同城, 曰伐// a: 斤谷村, 同村², 伯干支村², 伊同村³, 指大□村
 B: 另利丈, 曳安知, {□□}, 曰尸丁, 曰文, 曰次兮, 內丁, 戊七, 西□, 入夫□, 支刀,
 只次□
 C: 撰干, {□□}, {一伐}², {一尺}², 士干³, 阿尺²// d: 南山新城

(11') 경주 남산신성 제9비 고유명사 표기자 정리

干⁶ 谷 仇 斤 內 大 刀 同⁶ 另 利 戊 文 伯² 伐⁵ 夫 生 西 尸 阿² 安 曳 伊⁴ 一⁴
 入 丈 丁² 只 指 知 支³ 次² 撰 尺⁴ 七 兮 <자종 35, 연자수 64>

이상으로 6세기 신라 금석문 9종 11건에 나타난 고유명사 표기례를 수집하고, 각 금석문에 쓰인 고유명사 표기자를 자종과 연자수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여기서 字種數는 글자 그대로 해당 금석문의 고유명사 표기에 사용된 글자수임에 비하여,

延字數는 자종별 빈도수를 종합한 숫자이다. 다음 장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에서는 연자수를 기준으로 작업에 임할 것인바, 이는 어휘론에서의 語種數 vs. 延語數에 비견되는 것으로 동일한 글자가 몇 회 사용되었는지까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시의 한자 사용 양상을 좀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자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Ⅲ.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과 그 의의

1. 성모편

먼저 분석 대상의 6세기 신라 금석문 11종에 쓰인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연자수 기준)를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표 1〉 포항 중성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창		전탁		계
순음		幫非 p	5.5	滂敷 p ^h		並奉 b	11.5	明微 m	9.0					26.0
설음	설두	端 t	5.0	透 t ^h		定 d	4.0	泥娘日 n 來 l	6.0 9.0					24.0
	설상	知 t	14.0	徹 t ^h	1.0	澄 d								15.0

14) 이하의 성모 분포도는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漢語 中古音を 바탕으로 하되, 다음 몇 가지의 조정을 거쳐 제시된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 6세기가 위진남북조대 후기임을 감안하여 이 음계의 특징에 맞게 ①輕唇音[非·敷·奉·微]→重唇音[幫·滂·並·微], ②娘·日母→泥母, ③雲母→匣母 등 분화 이전의 상태로 제시하였다. 둘째, 曉母(/h-/)를 전통적으로 次淸音에 소속시켜 왔으나, 최근에 와서 이를 全淸音에 소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음(<https://zh.wikipedia.org/wiki/User:Polyhedron>)과 來母가 음성학적으로 舌頭音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曉母와 來母의 소속을 조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셋째, 船母와 禪母의 음가 재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논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정 토론을 맡아준 한경호 박사의 제안에 따라 초고와는 달리 /z-/ , /dz-/로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표에서 5.5 등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제시된 것은 복수음자 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권인한, 앞의 책, 216면의 설명을 참조.

치 음	치두	精 ts	1.5	清 ts ^h	0.5	從 dz				心 s	11.0	邪 z	1.0	14.0
	정치I	莊 ts	2.0	初 ts ^h		崇 dz	1.0			生 ʃ	8.0	俟 z		11.0
	정치II	章 te	12.0	昌 te ^h		禪 dz			2.0	書 ɕ		船 z		14.0
아음	見 k	14.0	溪 k ^h	1.0	羣 g	1.0	疑 ɳ							16.0
후음	影 ʔ	10.0			匣雲 f	1.0	以 j	3.0	曉 h	11.0				25.0
계		64.0		2.5		18.5		29.0		30.0		1.0		145.0

〈표 2〉 포항 냉수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칭		차칭		전탁		차탁		전칭		전탁		계
순음		幫非 p	7.0	滂敷 p ^h		並奉 b	4.0	明微 m	5.0					16.0
설 음	설두	端 t	4.0	透 t ^h		定 d	1.0	泥娘日 n 來 l	7.0 7.0					19.0
	설상	知 t	11.0	徹 t ^h		澄 d								11.0
치 음	치두	精 ts	5.0	清 ts ^h		從 dz				心 s	15.0	邪 z		20.0
	정치I	莊 ts	1.0	初 ts ^h		崇 dz				生 ʃ	4.0	俟 z		5.0
	정치II	章 te	13.0	昌 te ^h		禪 dz				書 ɕ	1.0	船 z		14.0
아음	見 k	15.0	溪 k ^h		羣 g	1.0	疑 ɳ							16.0
후음	影 ʔ	4.0			匣雲 f		以 j	1.0	曉 h	8.0				13.0
계		60.0				6.0		20.0		28.0				114.0

〈표 3〉 울진 봉평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칭		차칭		전탁		차탁		전칭		전탁		계
순음		幫非 p	7.0	滂敷 p ^h		並奉 b	9.0	明微 m	29.0					45.0
설 음	설두	端 t	7.0	透 t ^h	0.5	定 d	1.5	泥娘日 n 來 l	24.0 14.0					47.0
	설상	知 t	31.0	徹 t ^h		澄 d	1.0							32.0
치 음	치두	精 ts	3.5	清 ts ^h	3.5	從 dz				心 s	13.0	邪 z	1.0	21.0
	정치I	莊 ts		初 ts ^h		崇 dz	1.0			生 ʃ	7.0	俟 z		8.0
	정치II	章 te	15.0	昌 te ^h	3.0	禪 dz	1.0			書 ɕ	3.0	船 z	3.0	25.0
아음	見 k	26.0	溪 k ^h		羣 g		疑 ɳ	1.0						27.0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후음	影 ʔ	16.0			匣雲 ɦ	1.0	以 j	4.0	曉 h	15.0			36.0
계		105.5		7.0		14.5		72.0		38.0		4.0	241.0

〈표 4〉 울주 천전리 서석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4.5	滂敷 p ^h		並奉 b	6.5	明微 m	10.0					21.0
설 음	설두	端 t	3.5	透 t ^h	1.0	定 d		泥娘日 n 來 l	7.0 4.0					15.5
	설상	知 t	20.5	徹 t ^h		澄 d								20.5
치 음	치두	精 ts	1.0	清 ts ^h	2.0	從 dz				心 s	4.0	邪 z		7.0
	정치Ⅰ	莊 tʂ	2.0	初 tʂ ^h		崇 dz _l				生 ʃ	7.0	俟 z _l		9.0
	정치Ⅱ	章 tɕ	11.0	昌 tɕ ^h		禪 dz				書 ɕ	5.0	船 z		16.0
아음		見 k	13.0	溪 k ^h	1.0	羣 g		疑 ŋ						14.0
후음		影 ʔ	6.0			匣雲 ɦ	6.0	以 j		曉 h	4.0			16.0
계			61.5		4.0		12.5		21.0		20.0			119.0

〈표 5〉 단양 적성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9.0	滂敷 p ^h	0.5	並奉 b	5.5	明微 m	8.0					23.0
설 음	설두	端 t	3.0	透 t ^h		定 d	5.0	泥娘日 n 來 l	5.0 10.0					23.0
	설상	知 t	12.0	徹 t ^h		澄 d								12.0
치 음	치두	精 ts		清 ts ^h	4.0	從 dz				心 s	4.0	邪 z		8.0
	정치Ⅰ	莊 tʂ	3.0	初 tʂ ^h		崇 dz _l	2.0			生 ʃ	4.0	俟 z _l		9.0
	정치Ⅱ	章 tɕ	14.0	昌 tɕ ^h	2.0	禪 dz				書 ɕ	3.0	船 z		19.0
아음		見 k	14.0	溪 k ^h		羣 g	2.0	疑 ŋ						16.0
후음		影 ʔ	11.0			匣雲 ɦ	4.0	以 j	3.0	曉 h	11.0			29.0
계			66.0		6.5		18.5		26.0		22.0			139.0

〈표 6〉 창녕 진흥왕척경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11.5	滂敷 p ^h	並奉 b 12.5	明微 m 18.0			42.0
설음	설두	端 t 7.0	透 t ^h	定 d 1.0	泥娘日 n 8.0 來 l 5.0			21.0
	설상	知 t 40.0	徹 t ^h 1.0	澄 d 1.0				41.0
치음	치두	精 ts 4.0	清 ts ^h 5.0	從 dz 1.0		心 s 7.0	邪 z 1.0	18.0
	정치I	莊 tɕ 1.0	初 tɕ ^h	崇 dʑ 1.0		生 ɕ 24.0	俟 ʑ 1.0	24.0
	정치II	章 tɕ 2.0	昌 tɕ ^h 23.0	禪 dz 3.0		書 ɕ 5.0	船 z 1.0	33.0
아음		見 k 33.5	溪 k ^h 0.5	羣 g 6.0	疑 ŋ			40.0
후음		影 ʔ 11.0		匣雲 ɦ 3.0	以 j	曉 h 38.0		52.0
계		109.0	29.5	26.5	31.0	74.0	1.0	271.0

〈표 7〉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9.0	滂敷 p ^h 1.0	並奉 b 4.0	明微 m 10.0			24.0
설음	설두	端 t 2.0	透 t ^h	定 d 1.0	泥娘日 n 5.0 來 l 2.0			10.0
	설상	知 t 18.0	徹 t ^h	澄 d 1.0				18.0
치음	치두	精 ts 1.0	清 ts ^h 3.0	從 dz 1.0		心 s 7.0	邪 z 1.0	11.0
	정치I	莊 tɕ 1.0	初 tɕ ^h	崇 dʑ 1.0		生 ɕ 11.0	俟 ʑ 1.0	14.0
	정치II	章 tɕ 4.0	昌 tɕ ^h	禪 dz 1.0		書 ɕ 10.0	船 z 1.0	14.0
아음		見 k 11.0	溪 k ^h	羣 g 2.0	疑 ŋ			13.0
후음		影 ʔ 3.0		匣雲 ɦ 3.0	以 j 1.0	曉 h 11.0		18.0
계		48.0	4.0	10.0	18.0	28.0		108.0

〈표 8〉 대구 무술오작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1.5	滂敷 p ^h		並奉 b	6.5	明微 m	5.0					13.0
설음	설두	端 t	5.5	透 th		定 d	2.0	泥娘日 n 來 l	8.0 10.0					25.5
	설상	知 t	2.5	徹 th		澄 d								2.5
치음	치두	精 ts	2.5	淸 tsh	1.5	從 dz				心 s		邪 z		4.0
	정치Ⅰ	莊 tʂ		初 tʂh		崇 dz _l	1.0			生 ʃ	6.0	俟 z _l		7.0
	정치Ⅱ	章 tɕ	5.0	昌 tɕh	5.0	禪 dz				書 ɕ	1.0	船 z	2.0	13.0
아음		見 k	4.0	溪 kh		羣 g	1.0	疑 ŋ						5.0
후음		影 ʔ	16.0			匣雲 f	4.0	以 j	1.0	曉 h				21.0
계			37.0		6.5		14.5		24.0		7.0		2.0	91.0

〈표 9〉 경주 남산신성 1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1.0	滂敷 p ^h		並奉 b	1.0	明微 m	3.0					5.0
설음	설두	端 t	0.5	透 t ^h	1.0	定 d		泥娘日 n 來 l	7.0 7.0					15.5
	설상	知 t	7.5	徹 t ^h		澄 d								7.5
치음	치두	精 ts		淸 ts ^h	9.0	從 dz				心 s		邪 z		9.0
	정치Ⅰ	莊 tʂ		初 tʂ ^h		崇 dz _l	1.0			生 ʃ	5.0	俟 z _l		6.0
	정치Ⅱ	章 tɕ		昌 tɕ ^h	3.0	禪 dz				書 ɕ	4.0	船 z		7.0
아음		見 k	10.0	溪 k ^h		羣 g		疑 ŋ						10.0
후음		影 ʔ	8.0			匣雲 f	5.0	以 j	1.0	曉 h	3.0			17.0
계			27.0		13.0		7.0		18.0		12.0			77.0

〈표 10〉 경주 남산신성 2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3.0	滂敷 p ^h	並奉 b 4.0	明微 m 4.0			11.0
설음	설두	端 t 3.0	透 t ^h 1.5	定 d 1.5	泥娘日 n 5.0 來 l 6.0			17.0
	설상	知 t 3.0	徹 t ^h	澄 d				3.0
치음	치두	精 ts	清 ts ^h 1.0	從 dz		心 s 1.0	邪 z	2.0
	정치I	莊 tɕ	初 tɕ ^h	崇 dʑ	1.0	生 ɕ 8.0	俟 ʑ	9.0
	정치II	章 tɕ 11.0	昌 tɕ ^h 5.0	禪 dz		書 ɕ 7.0	船 z	23.0
아음	見 k 8.0	溪 k ^h		羣 g 1.0	疑 ŋ			9.0
후음	影 ʔ 9.0			匣雲 f 5.0	以 j	曉 h 3.0		17.0
계		37.0	7.5	12.5	15.0	19.0		91.0

〈표 11〉 경주 남산신성 9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계
순음		幫非 p 2.5	滂敷 p ^h	並奉 b 5.5	明微 m 3.0			11.0
설음	설두	端 t 2.0	透 t ^h 0.5	定 d 6.5	泥娘日 n 2.0 來 l 1.0			12.0
	설상	知 t 2.0	徹 t ^h	澄 d 1.0				3.0
치음	치두	精 ts	清 ts ^h 3.0	從 dz		心 s 1.0	邪 z	4.0
	정치I	莊 tɕ	初 tɕ ^h	崇 dʑ 1.0		生 ɕ 1.0	俟 ʑ	2.0
	정치II	章 tɕ 5.0	昌 tɕ ^h 4.0	禪 dz		書 ɕ 1.0	船 z	10.0
아음	見 k 8.0	溪 k ^h		羣 g 1.0	疑 ŋ			9.0
후음	影 ʔ 11.0			匣雲 f 1.0	以 j 1.0	曉 h		13.0
계		30.5	7.5	16.0	7.0	3.0		64.0

이상의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성모 분포도를 바탕으로 성모면에서 이들이 지닐 수 있는 음운사적 의의, 특히 고대 한국한자음 재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들에

대한 고찰을 행하도록 하겠다.

가. 무기음(전칭) vs. 유기음(차칭)의 비율

①중성리비	: 94.0(64.8%) vs. 2.5(1.7%)
②냉수리비	: 88.0(77.2%) vs. 0.0(0.0%)
③봉평리비	: 143.5(59.5%) vs. 7.0(2.9%) ¹⁵⁾
④천전리서석	: 81.5(68.5%) vs. 4.0(3.4%)
⑤단양적성비	: 88.0(63.3%) vs. 6.5(4.7%)
⑥창녕비	: 183.0(67.5%) vs. 29.5(10.9%)
⑦마운령비	: 76.0(70.4%) vs. 4.0(3.7%)
⑧무술오작비	: 44.0(48.4%) vs. 6.5(7.1%)
⑨남산1비	: 39.0(50.6%) vs. 13.0(16.8%)
⑩남산2비	: 56.0(61.5%) vs. 7.5(8.2%)
⑪남산9비	: 33.5(52.3%) vs. 7.5(11.7%)
cf)광개토_夫餘	: 38.0(50.7%) vs. 0.0(0.0%) ¹⁶⁾
광개토_韓	: 80.3(41.6%) vs. 6.0(3.1%)

위에서 보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유기음 비율이 10%대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광개토왕비문에서의 수치와 비슷하게 **6세기 신라한자음의 자음체계에서 유기음의 발달이 아직 미약한 단계였음을** 알려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하여 무기음 비율의 최저점이 무술오작비(578?)에 있다가 유기음 비율의 최고점이 바로 다음 비문인 남산신성 1비(591)에 있음은 6세기 후반에 와서 신라한자음에서의 유기음 발달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 말하자면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아 **6세기 중반 이후에 유기음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만한 것인데, 그 원인의 하나로는 고유명사 표기자 「尺」(昌母), 「次」(淸母)

15) 권인한, 앞의 논문과 달리 봉평리비의 일부 수치에 0.5의 차이가 곳곳에서 드러날 것인 바, 이는 「比」자의 음계를 “止脣㊦上旨幫→止脣㊦上旨幫/止脣㊦去至並”로 바로잡은 결과임을 밝혀둔다.

16) 광개토왕비문_부여계 · 한계에서의 비율 수치는 권인한, 앞의 논문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하 같음.

의 사용¹⁷⁾이 둘 다 봉평리비(524)에서 시작되어 「尺」은 창녕척경비(561)에서, 「次」는 남산신성비(591)에서 정점을 찍는 등 대체로 560년대 전후로 그 사용량이 늘어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덧붙여 유기음 성모들의 조음위치에 따른 빈도수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표 12〉 유기음 성모의 조음위치별 빈도수 추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합계
순음 滂敷	--	--	--	--	0.5	--	1.0	--	--	--	--	1.5
설음 透徹	1.0	--	0.5	1.0	--	1.0	--	--	1.0	1.5	0.5	6.5
치음 淸初昌	0.5	--	6.5	2.0	6.0	28.0	3.0	6.5	12.0	6.0	7.0	77.5
아음 溪	--	--	--	1.0	--	0.5	--	--	--	--	--	1.5

위의 표를 통하여 유기음의 발달이 “치음>설음>순음≠아음” 순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찾을 수 있거니와, 이는 국어 유기음의 조음위치별 단계적 발달설(김무림 1998, 박창원 2002 등)¹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나. 무성음(전청+차청) vs. 유성음(전탁+차탁)의 비율

①중성리비 : 96.5(66.6%) vs. 48.5(33.4%)

②냉수리비 : 88.0(77.2%) vs. 26.0(22.8%)

17) 「昌」: 봉평리비(3회), 적성비(1회), 창녕비(20회), 무술오작비(4회), 남산1·2·9비(합7회)

「次」: 봉평리비(3회), 천전리서석(2회), 적성비(4회), 창녕비(1회), 마운령비(2회), 남산신성1·2·9비(합10회)

18) 최근에 이르러 고대국어에서 유기음의 발달이 “치음>설음>순음>아음”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보는 단계적 발달설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치음의 차청자는 거의 대부분이 국어에서 유기음으로 반영되는 것은 한자의 차용시기에 치음의 유기음은 형성되어 있었고, 설음의 차청자가 대체로 국어에서 유기음으로 반영되는 것은 치음의 유기음보다 뒤에 설음의 유기음이 생성되었고, 아음의 차청자가 국어에서 평음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음 계열의 유기음이 가장 늦게 형성되었으며, 그 시기는 국어의 한자음이 굳어진 이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박창원, 『고대국어 음운(1)』, 태학사, 2002, 185면)

③봉평리비	: 150.5(62.4%) vs. 90.5(37.6%)
④천전리서석	: 85.5(71.8%) vs. 33.5(28.2%)
⑤단양적성비	: 94.5(68.0%) vs. 44.5(32.0%)
⑥창녕비	: 212.5(78.4%) vs. 58.5(21.6%)
⑦마운령비	: 80.0(74.1%) vs. 28.0(25.9%)
⑧무술오작비	: 50.5(55.5%) vs. 40.5(44.5%)
⑨남산1비	: 52.0(67.5%) vs. 25.0(32.5%)
⑩남산2비	: 63.5(69.8%) vs. 27.5(30.2%)
⑪남산9비	: 41.0(64.1%) vs. 23.0(35.9%)
cf)광개토_夫餘	: 38.0(50.7%) vs. 37.0(49.3%)
광개토_韓	: 86.3(44.7%) vs. 106.7(55.3%)

위에서 보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무성음 vs. 유성음 비율이 평균 7 : 3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6세기 신라한자음의 자음체계에서 유성음의 음소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알려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무술오작비의 경우 그 비율이 55 : 45로 나타남이 다소 이례적이나, 그럼에도 유성음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수치(55.3%)를 보이는 광개토왕비문_한계 자료와는 달리 여전히 무성음의 비율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서 위의 진술을 유지해도 좋을 것이다.

권인한, 앞의 논문, 2020에서 광개토왕비문_한계 vs. 신라 3비(①~③) 사이에 유성음 감소 현상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원인 규명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 확대해보아도 그 사정이 나아진 것은 없으므로 그 원인의 하나로써 광개토왕비문_한계 고유명사의 대부분이 백제계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결론을 내리고 싶다.¹⁹⁾ 말하자면 광개토왕비문_한계 자료와 신라 금석문 자료 사이에 동질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유성음 감소 현상의 존재 자체를

19)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논의로는 백제 목간의 음차자, 경흥의 반절자, 『日本書紀』 백제 고유명사 표기자 등을 자료로 백제한자음의 자음체계를 논의한 이승재, 『한자음으로 본 백제음 자음체계』, 태학사, 2013으로서, 여기에서 이 교수는 백제 자음체계에 유성음 계열(/b/ /d/ /dz/ /z/ /z/)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 이것을 일본의 홋카이도 한반도를 경유하여 전해진 음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강조한 바 있다.

재고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다. 설두음(端系) vs. 설상음(知系)의 비율

①중성리비	: 24.0(16.6%) vs. 15.0(10.3%)
②냉수리비	: 19.0(16.7%) vs. 11.0(9.6%)
③봉평리비	: 47.0(19.5%) vs. 32.0(13.3%)
④천전리서석	: 15.5(13.0%) vs. 20.5(17.2%)
⑤단양적성비	: 23.0(16.5%) vs. 12.0(8.6%)
⑥창녕비	: 21.0(7.7%) vs. 41.0(15.1%)
⑦마운령비	: 10.0(9.3%) vs. 18.0(16.7%)
⑧무술오작비	: 25.5(28.0%) vs. 2.5(2.7%)
⑨남산1비	: 15.5(20.1%) vs. 7.5(9.7%)
⑩남산2비	: 17.0(18.7%) vs. 3.0(3.3%)
⑪남산3비	: 12.0(18.8%) vs. 3.0(4.7%)
cf)광개토_夫餘	: 21.0(28.0%) vs. 0.0(0.0%)
광개토_韓	: 74.5(38.6%) vs. 4.0(2.1%)

위에서 보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전반적으로 설두음의 비율이 설상음의 비율을 상회함으로써(④ ⑥ ⑦ 예외)²⁰⁾ 설두음과 설상음의 구별이 없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말할 수 있겠다. 특히 6세기 초반 비문들에서 불규칙한 비율을 보이다가 무술오작비 이후 설상음의 비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짐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6세기 후반부터 『東國正韻』 申叔舟 서문에서 말한²¹⁾ 설두음·설상음의

20) 울주 천전리서석(525/539), 창녕 진흥왕척경비(561), 마운령 진흥왕순수비(568) 이 세 비문은 갈문왕 또는 국왕의 행차와 관련된 비문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에서 설상음의 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알기 어렵다.

21) “또 자모를 분류하여 만드는 것도, 성모를 고르게 할 뿐이라, 설두·설상음과 순중·순경음과 치두·정치음같은 것은, 우리나라 한자음에 있어서는 이를 구별할 수 없으니, 역시 마땅히 그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36자모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겠는가.(且字母之作諧於聲耳, 如舌頭·舌上·唇重·唇輕·齒頭·正齒之類 於我國字音 未可分辨, 亦當因其自然, 何必泥於三十六字乎?)”(강신항,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2011, 217~218면).

未分 상태가 자리잡았음을 보여줌도 또다른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치두음(精系) vs. 정치 I + II 음(莊系+章系)의 비율

①중성리비	: 14.0(9.7%) vs. 11+14=25.0(17.2%)
②냉수리비	: 20.0(17.5%) vs. 5+16=21.0(18.4%)
③봉평리비	: 21.0(8.7%) vs. 8+25=33.0(13.7%)
④천전리서석	: 7.0(5.9%) vs. 9+16=25.0(21.0%)
⑤단양적성비	: 8.0(5.8%) vs. 9+19=28.0(20.1%)
⑥창녕비	: 18.0(6.6%) vs. 24+33=57.0(21.0%)
⑦마운령비	: 11.0(10.2%) vs. 0+14=14.0(13.0%)
⑧무술오작비	: 4.0(4.4%) vs. 7+13=20.0(22.0%)
⑨남산1비	: 9.0(11.7%) vs. 6+ 7=13.0(16.9%)
⑩남산2비	: 2.0(2.2%) vs. 9+23=32.0(35.2%)
⑪남산9비	: 4.0(6.3%) vs. 2+10=12.0(18.8%)
cf)광개토_夫餘	: 5.0(6.7%) vs. 3.0+3.0= 6.0(8.0%)
광개토_韓	: 21.4(11.1%) vs. 8.6+2.5=11.1(5.8%)

그런데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전체적으로 정치음의 비율이 치두음의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본 설음의 경우와는 정반대 방향의 비율 대비를 보이는 것이어서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만만치 않을 것인바,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설명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위에 나타난 비율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설음의 경우와는 반대 방향 즉, 치두음→정치음으로의 중화로 해석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해석은 권인한 1999, 98면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거니와, 그 요지는 『三國史記』·『三國遺事』 소재 고유명사 이표기 자료에서 치두음인 精母↔精母의 대응례가 2례인데 비하여 정치음인 章母↔章母의 대응례는 9례임을 받아들여 고대국어의 치음계열에 중세국어의 /s/에 해당되는 음소가 치두음인 精母(/ts/)보다는 정치음인 章母(/tɕ/) 계통의 음가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 점이다. 자료에 충실한 해석을 추구한 것이나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박창원, 앞의 책, 185면의 각주 31)에서 “이러한 결론은 중세국

어의 /ㅈ/의 음가와 후대의 변화를 관련하여 생각하면 통시적인 변화과정이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측면이 있다. /ㅈ/의 조음위치가 고대국어의 구개음에서 중세국어의 치조음으로 그리고 다시 근대국어의 구개음으로 변화하였다는 설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을 받았기에 더이상 동일한 해석을 추구하기가 부담스럽게 되어 있다.

둘째는 위에서 드러난 치두 vs. 정치음의 비율 수치를 한어음운사적 기준에 의거하여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필자가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黃侃의 “照系二等諸母古讀精系說”(照系2等の 정치음 I 성모들은 상고음에서 精系 즉, 치두음으로 읽는다는 설)과 “照系三等諸母古讀舌頭音說”(照系3等の 정치음 II 성모들은 상고음에서 설두음으로 읽는다는 설)이다. 이 상고음 학설을 6세기 신라 금석문 자료에 적용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치음의 경우 위진남북조음 자료의 하나인 『經典釋文』에서 여기에 부합되는 상통례들이 광범위하게 찾아질 뿐만 아니라 당시 한반도와 교류가 잦았을 江東(山東·江蘇省) 출신의 音義家들에서 다수 보인다는 점에 서²²⁾ 이 학설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黃侃의 학설을 적용해보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설두음 vs. 설상음 / 치두음 vs. 정치음의 비율 수치는 각각

- ①중성리비 : 38.0(26.2%) vs. 15.0(10.3%) / 25.0(17.2%) vs. 0.0(0%)
- ②냉수리비 : 33.0(28.9%) vs. 11.0(9.6%) / 25.0(21.9%) vs. 0.0(0%)
- ③봉평리비 : 72.0(29.9%) vs. 32.0(13.3%) / 29.0(12.0%) vs. 0.0(0%)
- ④천전리서석 : 31.5(26.5%) vs. 20.5(17.2%) / 16.0(13.4%) vs. 0.0(0%)
- ⑤단양적성비 : 42.0(30.2%) vs. 12.0(8.6%) / 17.0(12.2%) vs. 0.0(0%)

22) 坂井健一, 『魏晉南北朝字音研究-經典釋文所引音義攷』, 東京: 汲古書院, 1975, 337~338면 참조.

○照系三等·舌音系 相通

徐邈音 9例, 劉昌宗音 6例, 李軌音 5例, 郭璞音 7例, 郭象音 8例, 向秀音 1例, 王元規音 1例, 字林音 1例, 沈重音 5例, 戚衮音 2例, 謝嶠音 4例, 龐野王音 2例, 鄭玄音 3例, 何胤音 1例, 施乾音 1例, 合計 56例

○照系二等·齒頭音 相通

徐邈音 13例, 劉昌宗音 20例, 李軌音 1例, 郭璞音 2例, 郭象音 3例, 字林音 2例, 沈重音 3例, 沈旋音 1例, 孫炎音 1例, 鄭玄音 3例, 何胤音 1例, 施乾音 1例, 合計 51例

⑥창녕비	: 54.0(19.9%) vs. 41.0(15.1%) / 42.0(15.5%) vs. 0.0(0%)
⑦마운령비	: 24.0(22.2%) vs. 18.0(16.7%) / 11.0(10.2%) vs. 0.0(0%)
⑧무술오작비	: 38.5(42.3%) vs. 2.5(2.7%) / 11.0(12.1%) vs. 0.0(0%)
⑨남산1비	: 22.5(29.2%) vs. 7.5(9.7%) / 15.0(19.5%) vs. 0.0(0%)
⑩남산2비	: 40.0(44.0%) vs. 3.0(3.3%) / 11.0(12.1%) vs. 0.0(0%)
⑪남산9비	: 22.0(34.4%) vs. 3.0(4.7%) / 6.0(9.4%) vs. 0.0(0%)

의 수치로 조정될 수 있게 된다. 조정된 값으로 보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은 모두 설두음과 치두음의 비율이 각각 설상음과 정치음의 비율을 상회함으로써 설두·설상음 및 치두·정치음의 미분 상태에 근사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음이 중요하다. 물론 위진남북조대는 정치음 계열이 불완전하게 정립된 시기이므로²³⁾ 위와 완전 동일한 수치로 도출될 수는 없겠으나, 전반적으로 설두음과 치두음의 비율이 설상음과 정치음의 그것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6세기 신라한자음의 자음체계에서의 설두·설상음 및 치두·정치음의 미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말해도 좋을 것이다.

2. 운모편

앞 절에서와 같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고유명사 표기자 운모 분포도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운모 분포도²⁴⁾에서 취소선이 그어진 攝은 그에 속하는 글자들

23) 坂井健一, 위의 책, 338면에서는 위의 照系二·三等 상통례들에 근거하여 “이 시기[위진남북조]에는 치음의 정치음 성모는 아직 36자모 체계로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음을 참조.

24) 여기서 위진남북조음의 운모체계에 맞추지 못하고 중고음의 攝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 것은 우선적으로 필자의 역량 한계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위진남북조음 운모체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坂井健一, 앞의 책, 384-386면에서 『經典釋文』 제 음의가들의 反切下字를 조사한 결과 『切韻』 반절하자와 70% 정도가 완전 일치한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이렇게 처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 TING Pang-hsin: 魏晉_37韻部
何大安: 魏_34韻部·晉_40韻部,
王力: 魏晉南北朝_42韻部,

이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함).

〈표 13〉 포항 중성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注	曾梗	通	
순음	4.0	1.0		3.0		5.0		0.0/7.0	3.0/1.0			0.0/1.0	25.0
설음	1.0	1.0	4.0	19.0	1.0	4.0	1.0/0.0	2.0/1.0	1.0/0.0		0.0/1.0	0.0/2.0	38.0
치음	8.0	5.0	3.0	17.0		2.0	1.0/1.0	0.0/0.0	0.0/2.0				39.0
아음	1.0	2.0				1.0	3.0/0.0	8.0/0.0	1.0/1.0			1.0/0.0	18.0
후음	2.0	2.0	10.0	2.0		1.0	1.0/0.0	0.0/0.0	0.0/7.0				25.0
계	16.0	11.0	17.0	41.0	1.0	13.0	6.0/1.0	10.0/8.0	5.0/11.0		0.0/1.0	1.0/3.0	145.0
	99.0(68.3%)						22.0(15.2%)/24.0(16.6%)						

〈표 14〉 포항 냉수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注	曾梗	通	
순음		2.0	5.0		2.0				0.0/3.0	2.0/1.0			0.0/1.0	16.0
설음		3.0	4.0	2.0	14.0	1.0	1.0	1.0/0.0		1.0/0.0		0.0/1.0		28.0
치음		4.0	4.0		25.0		1.5	2.0/0.0	0.0/3.0	0.0/1.0			0.0/0.5	41.0
아음			5.0				1.0	1.0/0.0	7.0/1.0				1.0/0.0	16.0
후음		1.0	1.0	7.0			1.0			0.0/3.0				13.0
계		10.0	19.0	9.0	41.0	1.0	4.5	4.0/0.0	7.0/7.0	3.0/5.0		0.0/1.0	1.0/1.5	114.0
		84.5(74.1%)						15.0(13.2%)/14.5(12.7%)						

이승재: 前期中古音(5세기 전반기)_30韻部(추정) 등.

〈표 15〉 울진 봉평리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 假	遇	蟹	止	效	流	咸 深	山	臻	宕 江	曾 梗	通	
순음		11.0	5.5		9.0		9.0		0.0/6.0	3.0/1.0	0.0/0.5			45.0
설음		5.0	1.0	15.5	38.0	2.0	1.0	3.5/0.0	2.0/0.0	1.0/0.0		1.0/1.0		71.0
치음		10.0	1.5		29.0		1.0	3.0/0.0	2.0/0.0	3.0/6.0		0.0/5.0	0.0/1.5	62.0
아음			6.0	1.0	1.0			2.0/0.0	8.0/2.0	1.0/5.0			1.0/0.0	27.0
후음		5.0	4.0	15.0	1.0					1.0/9.0		0.0/1.0		36.0
계		31.0	18.0	31.5	78.0	2.0	11.0	8.5/0.0	12.0/8.0	9.0/21.0	0.0/0.5	1.0/7.0	1.0/1.5	241.0
		171.5(71.2%)						31.5(13.1%)/38.0(15.8%)						

〈표 16〉 울주 천전리서석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 假	遇	蟹	止	效	流	咸 深	山	臻	宕 江	曾 梗	通	
순음		3.0	10.0				2.0		0.0/2.0	2.0/1.0	0.0/1.0			21.0
설음				6.0	24.0							1.0/1.0	0.0/3.0	35.0
치음		7.0			18.0		2.0	1.0/0.0		3.0/1.0		0.0/1.0		33.0
아음			3.0						7.0/2.0	0.0/2.0				14.0
후음		2.0	3.0	6.0						0.0/3.0		2.0/0.0		16.0
계		12.0	16.0	12.0	42.0		4.0	1.0/0.0	7.0/4.0	5.0/7.0	0.0/1.0	3.0/2.0	0.0/3.0	119.0
		86.0(72.3%)						16.0(13.4%)/17.0(14.3%)						

〈표 17〉 단양 적성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注	曾梗	通	
순음		2.0	7.0		4.0				0.0/2.0	3.0/5.0				23.0
설음		2.0		4.0	14.0	4.0	4.0	2.0/0.0		2.0/0.0		0.0/1.0		33.0
치음		4.0	1.0	1.0	23.0		3.0	1.0/0.0	1.0/1.0	0.0/2.0		0.0/1.0		38.0
아음				1.0				1.0/2.0	11.0/0.0					15.0
후음		8.0	2.0	12.0	3.0	1.0	1.0		0.0/1.0		0.0/1.0	0.0/1.0		30.0
계		16.0	10.0	18.0	44.0	5.0	8.0	4.0/2.0	12.0/4.0	5.0/7.0	0.0/1.0	0.0/3.0		139.0
		101.0(72.7%)						21.0(15.1%)/17.0(12.2%)						

〈표 18〉 창녕 진흥왕척경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注	曾梗	通	
순음		2.0	10.0		5.0		1.0		0.0/14.0	4.0/0.0	2.0/0.0	0.0/2.0	1.0/1.0	
설음			1.0	7.0	42.0	2.0	1.0			1.0/0.0		3.0/4.0	0.0/1.0	
치음		26.0	1.0	1.0	5.0	1.0	1.0	1.0/2.0	1.0/3.0	2.0/8.0		0.0/20.0	2.0/1.0	
아음			1.0					2.0/6.0	28.0/1.0	0.0/2.0				
후음		2.0	1.0	34.0				0.0/1.0	3.0/0.0	1.0/10.0				
계		30.0	14.0	42.0	52.0	3.0	3.0	3.0/9.0	32.0/18.0	8.0/20.0	2.0/0.0	3.0/26.0	3.0/3.0	271.0
		144.0(53.1%)						51.0(18.8%)/76.0(28.1%)						

〈표 19〉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 假	遇	蟹	止	效	流	咸 深	山	臻	宕 江	曾 梗	通	
순음		2.0	5.0		4.0		2.0	0.0/1.0	1.0/3.0	2.0/1.0	0.0/1.0	1.0/0.0	0.0/1.0	24.0
설음				4.0	16.0				1.0/0.0	1.0/0.0	1.0/0.0	0.0/1.0	2.0/1.0	27.0
치음		15.0			7.0			0.0/1.0	0.0/1.0	1.0/1.0				26.0
아음		1.0	1.0					0.0/2.0	6.0/0.0	0.0/3.0				13.0
후음		1.0	1.0	13.0	3.0									18.0
계		19.0	7.0	17.0	30.0		2.0	0.0/4.0	8.0/4.0	4.0/5.0	1.0/1.0	1.0/1.0	2.0/2.0	108.0
		75.0(69.4%)						16.0(14.8%)/17.0(15.7%)						

〈표 20〉 대구 무술오작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 假	遇	蟹	止	效	流	咸 深	山	臻	宕 江	曾 梗	通	
순음		1.0		1.0	2.0	3.0		0.0/6.0					13.0	
설음				3.0	14.0	1.0	1.0			2.0/1.0		2.0/2.0	2.0/0.0	28.0
치음		2.0	4.0		6.0			0.0/1.0		1.0/2.0	1.0/1.0	2.0/4.0		24.0
아음			1.0		1.0		1.0							3.0
후음		2.0	1.0	4.0	2.0				2.0/0.0	0.0/12.0				23.0
계		4.0	7.0	7.0	24.0	3.0	5.0	0.0/1.0	2.0/6.0	3.0/15.0	1.0/1.0	4.0/6.0	2.0/0.0	91.0
		50.0(54.9%)						12.0(13.2%)/29.0(31.9%)						

〈표 21〉 경주 남산신성 1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假	遇	蟹	止	效	流	咸深	山	臻	宕江	曾梗	通	
순음								0.0/2.0	1.0/1.0	4.0/0.0			8.0
설음		3.0	4.0	8.0					1.0/0.0	1.0/0.0	1.0/0.0	0.0/2.0	20.0
치음	6.0			7.0		1.0		1.0/0.0	1.0/3.0		2.0/1.0		22.0
아음		2.0					1.0/0.0	6.0/0.0	1.0/0.0				10.0
후음	6.0		5.0				3.0/1.0		0.0/1.0		1.0/0.0		17.0
계	12.0	5.0	9.0	15.0		1.0	4.0/1.0	7.0/2.0	4.0/5.0	5.0/0.0	4.0/1.0	0.0/2.0	77.0
	42.0(54.5%)						24.0(31.2%)/11.0(14.3%)						

〈표 22〉 경주 남산신성 2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 假	遇	蟹	止	效	流	咸 深	山	臻	宕 江	曾 梗	通	
순음					3.0	1.0	1.0		0.0/3.0	1.0/1.0		1.0/0.0		11.0
설음				3.0	11.0			0.0/1.0	1.0/0.0	1.0/2.0		0.0/1.0		20.0
치음		7.0	2.0	1.0	16.0		2.0		1.0/0.0	0.0/2.0		1.0/2.0		34.0
아음		2.0					2.0	0.0/1.0	4.0/0.0					9.0
후음		3.0		8.0					1.0/0.0	0.0/5.0				17.0
계		12.0	2.0	12.0	30.0	1.0	5.0	0.0/2.0	7.0/3.0	2.0/10.0		2.0/3.0		91.0
		62.0(68.1%)						11.0(12.1%)/18.0(19.8%)						

〈표 23〉 경주 남산신성 9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운모 분포

성모	운류 운미 섭	음성운						양성운/입성운						계
		-0		-i		-u		-m/p		-n/t		-ŋ/k		
		果 假	遇	蟹	止	效	流	咸 深	山	臻	宕 注	曾 梗	通	
순음		1.0				2.0		0.0/5.0	1.0/0.0		0.0/2.0		11.0	
설음				2.0	2.0	1.0		0.0/1.0				2.0/0.0		8.0
치음				1.0	8.0				1.0/0.0	0.0/1.0	1.0/0.0	1.0/4.0	6.0/0.0	23.0
아음							1.0		6.0/0.0	1.0/0.0				8.0
후음		2.0		2.0	4.0				1.0/0.0	0.0/4.0			0.0/1.0	14.0
계		2.0	1.0	5.0	14.0	1.0	3.0	0.0/1.0	8.0/5.0	2.0/5.0	1.0/0.0	3.0/6.0	6.0/1.0	64.0
		26.0(40.6%)						20.0(31.3%)/18.0(28.1%)						

위에서 제시된 비문별 고유명사 표기자의 운모 분포도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한자음 관련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마. 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

- ①중성리비 : 99.0(68.3%) vs. 22.0(15.2%) vs. 24.0(16.6%)
 ②냉수리비 : 84.5(74.1%) vs. 15.0(13.2%) vs. 14.5(12.7%)
 ③봉평리비 : 171.5(71.2%) vs. 31.5(13.1%) vs. 38.0(15.8%)
 ④천전리서석 : 86.0(71.2%) vs. 16.0(13.4%) vs. 17.0(14.3%)
 ⑤단양적성비 : 101.0(72.7%) vs. 21.0(15.1%) vs. 17.0(12.2%)
 ⑥창녕비 : 144.0(53.1%) vs. 51.0(18.8%) vs. 76.0(28.1%)
 ⑦마운령비 : 75.0(69.4%) vs. 16.0(14.8%) vs. 17.0(15.7%)
 ⑧무술오작비 : 50.0(54.9%) vs. 12.0(13.2%) vs. 29.0(31.9%)
 ⑨남산1비 : 42.0(54.5%) vs. 24.0(31.2%) vs. 11.0(14.3%)
 ⑩남산2비 : 62.0(68.1%) vs. 11.0(12.1%) vs. 18.0(19.8%)
 ⑪남산9비 : 26.0(40.6%) vs. 20.0(31.3%) vs. 18.0(28.1%)
 cf)광개토_夫餘 : 48.0(64.0%) vs. 16.0(21.3%) vs. 11.0(14.7%)
 광개토_韓 : 128.0(66.3%) vs. 46.0(23.8%) vs. 19.0(9.8%)

위에서 우선 주목되는 점은 광개토왕비문에서 세 운류의 비율이 ‘음성운>양성운>입성운’의 순서로 나타남에 비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는 ‘음성운>입성운>양성운’ 순서의 비문들(① ③ ④ ⑥ ⑦ ⑧ ⑩)이 ‘음성운>양성운>입성운’ 순서의 비문들(② ⑤ ⑨ ⑪)에 양적으로 우세함으로써 입성운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⑤단양 적성비와 ⑥창녕비 사이에 음성운의 비율이 70%대에서 50%대로 급하락한 반면, 입성운의 비율은 10%대에서 20% 후반대로 급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양성운은 ⑨남산1비에서, 입성운은 ⑧무술오작비에서 각각 최고점을 찍고 있음을 보아서는 6세기 후반에 들어 개음절 구조에서 폐음절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하는 바, ‘개음절(음성운) vs. 폐음절(양성운+입성운)’의 비율 대비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①중성리비	: 99.0(68.3%) vs. 46.0(31.7%)
②냉수리비	: 84.5(74.1%) vs. 29.5(25.9%)
③봉평리비	: 171.5(71.2%) vs. 69.5(28.8%)
④천전리서석	: 86.0(71.2%) vs. 33.0(27.7%)
⑤단양적성비	: 101.0(72.7%) vs. 38.0(27.3%)
⑥창녕비	: 144.0(53.1%) vs. 127.0(46.9%)
⑦마운령비	: 75.0(69.4%) vs. 33.0(30.5%)
⑧무술오작비	: 50.0(54.9%) vs. 41.0(45.1%)
⑨남산1비	: 42.0(54.5%) vs. 35.0(45.5%)
⑩남산2비	: 62.0(68.1%) vs. 29.0(31.9%)
⑪남산9비	: 26.0(40.6%) vs. 38.0(59.4%)
cf)광개토_夫餘	: 48.0(64.0%) vs. 27.0(36.0%)
광개토_韓	: 128.0(66.3%) vs. 65.0(33.7%)

위에서 보듯이 개음절 vs. 폐음절의 비율이 ②냉수리비에서 75 : 25 정도의 수치를 보이다가 ⑪남산9비에서는 40 : 60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6세기 말엽에 이르러 신라 한자음의 음절구조가 개음절 구조에서 폐음절 구조로의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5세기 초의 고구려한자음과 6세기 말의 신라한자음 사이에 음절구조상의 차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말할 수 있음을 그 의의

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바. 성조의 분포

	평성	상성	거성	입성
①중성리비	75.0(51.7%)	7.0(4.8%)	39.5(27.2%)	23.5(16.2%)
②냉수리비	65.0(57.0%)	10.0(8.8%)	25.5(22.4%)	13.5(11.8%)
③봉평리비	105.9(43.9%)	16.3(6.8%)	79.0(32.8%)	39.8(16.5%)
④천전리서석	61.0(51.3%)	13.5(11.3%)	28.0(23.5%)	16.5(13.9%)
⑤단양적성비	67.5(48.6%)	19.5(14.0%)	34.5(24.8%)	17.5(12.6%)
⑥창녕비	88.5(32.7%)	14.5(5.4%)	92.5(34.1%)	75.5(27.9%)
⑦마운령비	44.0(40.7%)	7.5(6.9%)	39.5(36.6%)	17.0(15.7%)
⑧무술오작비	29.9(32.9%)	17.3(19.0%)	14.0(15.4%)	29.8(32.7%)
⑨납산1비	38.0(49.4%)	9.0(11.7%)	19.0(24.7%)	11.0(14.3%)
⑩납산2비	43.5(47.8%)	12.0(13.2%)	17.5(19.2%)	18.0(19.8%)
⑪납산9비	33.5(52.3%)	5.0(7.8%)	7.0(10.9%)	18.5(28.9%)
cf)광개토-夫餘	44.0(58.7%)	13.0(17.3%)	7.0(9.3%)	11.0(14.7%)
광개토-韓	105.7(54.8%)	25.5(13.2%)	43.3(22.4%)	18.5(9.6%)

성조의 분포에 있어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는 평성자 선호 경향에서의 공통점을 보이는 동시에 성조별 비율에 있어서는 “평성>거성>입성>상성”의 순서의 비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① ② ③ ④ ⑥ ⑦ ⑨). 이를 광개토왕비문과 비교해보면 평성자 선호 경향에서의 공통점만 보일 뿐, 성조별 비율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통점을 찾아지지 않는다(⑤단양적성비에서의 “평성>거성>상성>입성”의 순서가 광개토왕비문_한계와의 공통점일 뿐이다). 이는 6세기 신라 금석문들과 광개토왕비문 사이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차이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하나 위의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성조 분포도에서의 특징적인 흐름은 ⑦마운령비와 ⑧무술오작비 사이에 비평성자(=仄聲字)들의 비율이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라한자음에서 성조의 분포면에서도 그 이전과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운모면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는 江攝字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나, 이 현상은 권인한(2015: 222)에서 말한 대로

강섭자가 전체 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못미치므로 그만큼 고유명사 표기자로 선택될 확률이 낮았던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봄이 안전할 것이다.²⁵⁾

3. 음소 분포 제약

음소 분포 제약이란 특정 음소가 특정한 위치에 나타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음을 말하는데, 주요 고찰 대상은 어두에서의 疑母(/ŋ-/), 來母(/l-/)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 권인한(2011)에서 시작된 소위 두음법칙의 존재 여부에 대한 추적의 속편인 셈이다.

〈표 24〉 疑母字의 분포

	어두	어중
①중성리비	--	--
②냉수리비	--	--
③봉평리비	--	宜 ¹ 弥宜智
④천전리서석	--	--
⑤단양적성비	--	--
⑥창녕비	--	--
⑦마운령비	--	--
⑧무술오작비	--	--
⑨남산1비	--	--
⑩남산2비	--	--
⑪남산9비	--	--
cf)광개토_夫餘	--	--
광개토_韓	巖 ¹ 巖門□城	--

25) 다만, 한 세기에 걸쳐 특정 섭의 결핍 분포가 지속됨은 결코 예사로운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蛇足を 달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강섭이 상고음에서 魏晉·宋·北魏 전기(~493)에 이르기까지 東部에 속한 운부였다가, 齊·梁·陳·北周·隋代(480~618)에 와서야 비로소 독립된 운부임(何大安, 『南北朝韻部演變研究』, 台北: 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 1981, 八十九, 一二七면)에 주목하여 강섭자 불용의 굳건한 흐름을 보이는 6세기 신라한자음은 魏晉代의 음을 근간으로 한 체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먼저 疑母字의 경우는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어두는 물론 어중에서도 그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어중에서의 유일한 예는 ③봉평리비에서의 인명 표기 “弥宜智”인데, 이는 그만큼 6세기 신라 비문들에서는 광개토왕비문_한계에서보다 음소 /ŋ/의 분포에 있어서의 제약이 더욱 철저하였음을 알려준다.

〈표 25〉 來母字의 분포

	어두	어중
①중성리비	--	列 ¹ 仇鄒列支 盧 ¹ 斯盧 利 ⁶ 蘇豆古利村, 果西牟利, 斯利,, 沙利, 夷斯利, 壹斯利 哩 ¹ 心刀哩
②냉수리비	--	盧 ² 到盧弗, 至都盧 利 ⁴ 節居利 ³ , 那斯利
③봉평리비	--	羅 ⁴ 居伐牟羅 ⁴ 力 ¹ 勿力智 婁 ² 比須婁, 烏婁次 利 ⁷ 尼牟利, 只斯利, 奈爾利 ² , 於卽斤利, 牟珍斯利公, 牟利智
④천전리서석	-- cf)(d)麗德<원명>	禮 ¹ 知礼夫知<추명> 六 ¹ □泊六知<추명> 利 ² 余利夫智<원명>, 一利□次<추명>
⑤단양적성비	--	羅 ¹ 刀羅兮 力 ¹ 武力智 禮 ² 內礼夫智, 烏礼兮 婁 ¹ 巳珎婁 利 ³ 那利村, 奈弗耽郝失利, 又悅利巳 里 ¹ 非今皆里村 林 ¹ 高頭林城
⑥창녕비	--	力 ² 甘力智, 另力智 利 ² 碑利城, 弥利□次公 里 ¹ 小里夫智
⑦마운령비	--	良 ¹ 加良知 力 ¹ 另力智

⑧무술오작비	--	令 ¹ 芴令 利 ⁷ 仇利支村, 玆得所利村, 豆尔利兮, 也得失利, 伊此尔利, 壹利刀兮, 壹利兮 里 ² 另冬里村 ²
⑨남산1비	--	良 ⁴ 阿良(村) ⁴ 禮 ² 知礼次, 次□叱礼 利 ¹ □知尔利
⑩남산2비	--	利 ⁵ 久利城, 仇利城, 本西利之, 首□利之, 兮利之 里 ¹ 可沙里知
⑪남산9비	--	利 ¹ 另利丈
cf)광개토_夫餘	--	盧 ¹ 鴨盧 婁 ³ 味仇婁, 俳婁, 端社婁 流 ¹ 沸流谷 留 ² 大朱留王, 儒留王 利 ² 碑利城, 奄利大水
광개토_韓	林 ¹ 林城	羅 ⁶ 古須耶羅城, 芬而耶羅城, 新羅, 新羅城, 安羅, 任那加羅 盧 ⁴ □古盧城, 各模盧城, 白模盧城, 牟盧城 婁 ⁶ 古牟婁城, 婁城, 婁賣城, 牟婁城, 燕婁城, 于婁城 利 ¹⁰ □利城, □□□□□□利城, 幹氏利城, 古利城, 沸□□利城, 析支利城, 阿利水, 也利城, 於利城, 奧利城

위에서 보듯이 來母字의 경우는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어종의 분포는 자유로운 반면, 어두에서는 그 제약이 매우 철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예외는 ④천전리서석_원명에서의 漢化 인명으로 추정되는 “麗德”).

따라서 『삼국지』·동이전_한계에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疑母字 또는 來母字의 어두 제약을 어긴 경우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漢化 표기이거나 수적으로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3세기 초~6세기 말에 이르는 고대국어 자료들에서 어두에서 /ŋ-/은 물론 /l-/이 설 수 없었던 음소

분포 제약 즉, 두음법칙의 존재가 굳건하였던 것으로 최종 정리해도 좋을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포항 중성리신라비(501)~경주 남산신성비(591)”에 이르는 6세기 신라 비문 9종 11건에서 수집·정리된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분포를 바탕으로 음운학적 고찰을 행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고대한국한자음 연구 관련 음운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본론의 논의에서 드러난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지표별 논의의 정리

가. 무기음(전청) vs. 유기음(차청)의 비율: 전반적으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유기음 비율이 10%대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광개토왕비문에서와 비슷하게 신라한자음의 자음체계에서 유기음의 발달이 아직 미약한 단계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다만, 6세기 후반에 올수록 치음자를 중심으로(「昌」, 「次」 등) 유기음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도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⑥창녕비를 기점으로 치음 차청자의 빈도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을 실마리로 유기음 성모의 조음위치별 빈도수 추이를 살핀 결과, 유기음의 발달이 “치음>설음>순음≒아음” 순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도 또다른 의의로 삼을 수 있다.

나. 무성음(전창+차청) vs. 유성음(전탁+차탁)의 비율: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무성음 vs. 유성음 비율이 평균 7 : 3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당시 신라한자음의 자음체계에서 유성음의 음소적 지위가 약하였음을 알려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또한 광개토왕비문_한계에서 무성음 vs. 유성음 비율이 45 : 55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광개토왕비문_한계의 고유명사 대부분이 백제계인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설두음(端系) vs. 설상음(知系)의 비율: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전반적으로 설두음의 비율이 설상음의 비율을 상회함으로써 설두음과 설상음의 구별이 없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말할 수 있다(설상음→설두음으로의 중화). 특히 6세기 초반 비문들에서 불규칙한 비율을 보이다가 무술오작비 이후 설상음의 비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짐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6세기 후반부터 『東國正韻』 신숙주 서문에서 말한 설두음·설상음의 미분 상태가 자리잡았음을 보여줌도 또다른 의의가 될 수 있다.

라. 치두음(精系) vs. 정치 I + II 음(莊系+章系)의 비율: 설음의 경우와는 달리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전체적으로 정치음의 비율이 치두음의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설음의 경우와는 반대 방향의 중화로 해석해야 하나, 이는 국어 치음의 통시적인 변화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설명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黃侃의 “照系二等諸母古讀精系說” 및 “照系三等諸母古讀舌頭音說”을 적용하여 조정해본 결과,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설두음과 치두음의 비율이 각각 설상음과 정치음의 비율을 상회함으로써 설두·설상음 및 치두·정치음의 미분 상태에 근사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의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 광개토왕비문에서 세 운류의 비율이 ‘음성운>양성운>입성운’의 순서로 나타남에 비해,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는 ‘음성운>입성운>양성운’ 순서의 비문들이 ‘음성운>양성운>입성운’ 순서의 비문들에 양적으로 우세함으로써 입성운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음이 주목된다. 즉, ⑤단양 적성비와 ⑥창녕비 사이에 음성운의 비율이 70%대에서 50%대로 급하락한 반면, 입성운의 비율은 10%대에서 20% 후반대로 급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운은 ⑨남산1비에서, 입성운은 ⑧무술오작비에서 각각 최고점을 찍고 있음을 보아서 6세기 후반에 들어 개음절 구조에서 폐음절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하는 바, ‘개음절(음성운) vs. 폐음절(양성운+입성운)’의 비율 대비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5세기 초의 고구려한자음과 6세기 말의 신라한자음 사이에 음절구조상의 차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말할 수 있음을 그 의의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바. 성조의 분포: 성조의 분포에 있어서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는 평성자 선호 경향에서의 공통점을 보이는 동시에 성조별 비율에 있어서는 “평성>거성>입성>상성” 순서의 비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광개토왕비문과 비교해보면 평성자 선호 경향에서의 공통점만 보일 뿐, 성조별 비율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통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6세기 신라 금석문들의 성조 분포도에서 특징적인 흐름은 ⑦마운령비와 ⑧무술오작비의 사이에 비평성자들의 비율이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6세기 후반에 들어 신라한자음에서의 평성자 선호 경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사. 음소 분포 제약: 먼저 疑母字의 경우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어두는 물론 어중에서도 그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6세기 신라에서는 광개토왕비문_한계에서보다 음소 /ŋ/의 분포에 있어서의 제약이 더욱 철저하였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來母字의 경우는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 어중의 분포는 자유로운 반면, 어두에서는 그 제약이 매우 철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지』·동이전에서부터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疑母字 또는 來母字의 어두 제약을 어긴 표기례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수적으로 미미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3세기초~6세기말에 이르는 고대국어 자료들에서 어두에서 /ŋ-/은 물론 /l-/이 설 수 없었던 음소 분포 제약 즉, 두음법칙의 존재가 굳건하였던 것으로 최종 정리해도 좋을 것이다.

2. 고대 한국한자음 연구에 있어서의 의의

앞서 정리된 본고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라한자음은 6세기 전반에는 광개토왕비문으로 대표되는 5세기 고구려한자음과의 공통성을 유지해오다가 6세기 후반에 들어 몇 가지 차이점들이 나타나면서 점차 신라화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말할 수 있고, 이를 고대 한국한자음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본고의 의의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6세기 초 신라 3비문과의 비교에서 성모면에서의 전청(무기음) vs. 차청(유기음)의 비율, 설두음 vs. 설상음, 치두음 vs. 정치음의 비율, 운모면에서의 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 및 개음절 vs. 폐음절의 비율, 성조 분포에서의 평성자 선호 경향, 음소 분포 제약면에서의 疑·來母字의 어두 제약 등에서 광개토왕비문_한계 사이의 상당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바(권인한, 앞의 논문, 56면), 이러한 공통성이 대체로 ⑤단양적성비(545~550?)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한자음에서의 6세기 전반기는 고구려한자음 이식기로 특징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다가 6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다른 면모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첫째 전청(무기음) vs. 차청(유기음)의 비율면에서 무기음의 비율이 ⑧무술오작비(578?)에서 최저점을 찍음과 동시에 유기음의 비율이 ⑨남산1비(591)에서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점, 둘째 설두음 vs. 설상음의 비율면에서 ⑧무술오작비에서 각각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고 있다는 점, 셋째 음성운 vs. 양성운 vs. 입성운의 비율면에서 ⑪남산9비(591)에서 음성운의 최저점을 찍는 한편, ⑨남산1비와 ⑧무술오작비에서 양성운과 입성운의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점, 넷째 성조 분포면에서 ⑦마운령비(568)와 ⑧무술오작비에서 비평성자(=仄聲字)들의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들을 통하여 6세기 후반, 특히 ⑧무술오작비를 전후한 시기에 유기음자의 증가, 설두음자의 증가 및 설상음자의 급감, 양성운·입성운자의 증가, 비평성자 사용의 증가 등 광개토왕비 문과의 차이점인 동시에 신라한자음의 독자적 특징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남은 과제와 전망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6세기 신라 금석문들에서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신라한자음의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식적 성격이 강한 금석문과 달리 비공식적 성격의 6세기 후반 함안 목간들에서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을 통해서도 본고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에 남아 있는 7~8세기의 불경 음주 및 각필점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다짐해본다.

투고일: 2020.12.04

심사일: 2021.03.10

게재확정일: 2021.03.12

참고문헌

- 강신항,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2011
-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문자자료 I · II』, 비에이디자인, 2017 · 2019
- 권인한,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2011
- _____, 『광개토왕비문 신연구』, 박문사, 2015
- _____, 「포항중성리신라비의 국어사적 의의 탐색: 신라 3비문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및 비교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한국고대사학회 편, 『신라 왕경과 포항중성리신라비』, 2020
- 김무림, 「고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8
- 남풍현, 『이두연구』, 태학사, 2000
- 노중국, 「울주 천전리서석 ·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신라1 · 가야 편)』,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박방룡, 「남산신성비 · 월성해자비의 재해석」, 『목간과 문자』 8, 한국목간학회, 2011
- 박병철, 「울주 천전리서석 원명과 추명에 대하여」, 구결학회 월례 강독회 발표문, 2006.5.13
- 박창원, 『고대국어 음운(1)』, 태학사, 2002
-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편, 『신라 금석문 탁본전』, 성균관대 출판부, 2008
- 이명식, 「경주 남산신성비」,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신라1 · 가야 편)』,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이문기, 「울주 천전리서석」,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신라1 · 가야 편)』,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이승재, 『한자음으로 본 백제음 자음체계』, 태학사, 2013
- _____, 『전기 중고음』, 일조각, 2018
- 장경준, 「단양적성비문의 재검토」, 『한국목간학회 제4회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2009
- 정재영 · 최강선, 「무술오작비 3D 스캔 판독」, 구결학회 월례 연구발표회, 2019.12.28
- 정현숙, 『삼국시대의 서예』, 일조각, 2018
- 주보돈, 「단양 적성비 · 대구 무술오작비」,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권(신라1 · 가야 편)』,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_____, 「남산신성의 축조와 남산신성비-제9비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10 · 11,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4
- 하일식, 「무술오작비 추가 조사 및 판독 교정」, 『목간과 문자』 3, 한국목간학회, 2009
- 한경호, 『新出土戰國-西漢時期楚地文獻語音研究』, 上海: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 Ting Pang-hsin, *CHINESE PHONOLOGY OF THE WEI-CHIN PERIOD: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SPECIAL PUBLICATIONS NO. 65, 1975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何大安, 『南北朝韻部演變研究』, 台北: 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 1981

橋本繁, 「중고기 신라 축성비의 연구」, 『동국사학』 55, 동국사학회, 2013

_____, 「戊戌塙作碑釋文の再檢討」,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94集, 千葉: 正文社, 2015

坂井健一, 『魏晉南北朝字音研究-經典釋文所引音義攷』, 東京: 汲古書院, 1975

A Phonological Analysis on the Sinographs for Proper Nouns of 6th Century Silla Epigraphs

Kwon, In-han

Based on the analysis of sinographs for proper nouns used in 11 kinds of Silla epigraphs in the 6th century,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such as of initials, finals, and tones, this paper aims to study their phonological historical significance, and especially to examine what can contribute to research on Ancient Sino-Korean.

In Chapter 2, I have analyzed the original text structure of 11 kinds of epigraphs in "Jungseong-ri, Pohang, stele(501) to Gyeongju Nam-san Sinseong Fortress 1 · 2 · 9 steles (591)", collected proper noun notations, and arranged sinographs, except for "Bukhan-san and Hwangcho-ryeong King Jingheung's commemoration steles and Gyeongju Nam-san Sinseong Fortress 3 · 4 · 5 · 6 · 7 · 8 · 10th steles", because of their be severely damaged or poor in in the number of proper noun examples than those.

In Chapter 3, based on individual epitaphs' sinographs for proper nouns' initials, finals and tones distribution and yimu and laimu characters(疑·來母字) distribution, as collected and arranged in Chapter 2, I hav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flow of the distribution of sinographs for proper nouns in terms of the same indicators and methodologies as in Part 2 of Kwon(2015), such as ①the ratio of unaspirated sounds vs. aspirated sounds, ②the ratio of voiceless sounds(voiceless unaspirated sounds+voiceless aspirated sounds) vs. voiced sounds(voiced obstruents+voiced sonorants), ③the ratio of apico-alveolar plosives(舌頭音) vs. dorso-prepalatal plosives(舌上音), ④the ratio of dental sounds vs. post-alveolar sounds, ⑤the ratio of open syllable sounds vs. nasal-ending sounds vs. stop-ending sounds, and the ratio of open syllables vs. closed syllables, ⑥the distribution of tones, and ⑦phoneme distribution constraints.

In Chapter 4, I have concluded as follows: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Sino-Silla system maintained commonality with that of 5th century Sino-Goguryeo represented by King Gwanggaeto's stele before they were gradually assimilated into Sino-Silla with some differences in the late 6th century.

Key Words : 6th century Silla epigraphs, Ancient Sino-Korean, Sino-Silla, Sino-Goguryeo, the distribution of initials, finals and tones